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운영사례집



●●●● 일러두기

- 본 운영사례집은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운영 기관(16개 공공도서관, 18개 참여기관)에서 진행한 독서프로그램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각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는 사업 담당자가 작성하였습니다.
 - 배열은 지역별로 구분하였으며, 지역별 수록순서는 기관명의 가나다순을 따랐습니다.
-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가. 사업목적

- 학교 밖 울타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의 협업을 통해 책을 매개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전국 확산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검증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년 1월~12월
- 운영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20~28회/1회 2시간 기준)
- 주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 대상 학교 밖 청소년(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센터, 탈북청소년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 운영기관 전국 16개 공공도서관, 18개 참여기관
- 사업내용
 -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새로운 공공도서관 서비스 모델 제시
 - 전국 16개 공공도서관이 각 지역의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 ▶ 전문 독서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을 기반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진로방향 설정을 도울 수 있도록 매주마다 전문 강사가 청소년지원센터등을 방문하여 책(독서)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체험(독후활동)과 상담(진학,취업,심리 등)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
 - ▶ 운영자 워크숍 개최
 - 학교 밖 청소년독서프로그램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담당자 전문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다양한 강의 및 운영사례 공유, 의견 수렴

다. 추진경과

2017. 1.~2.	수요조사 및 운영기관 선정	2017. 7.	운영자 워크숍 개최
2017. 3.	사업 운영 설명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2017. 11.	최종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
2017.4.~10.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현장방문	2017. 12.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라. 운영현황

프로그램	프로그램 횟수	총 참여자 수	도서제공 책 수	참여강사 수
운영	452회 (1기관당 평균 25회)	3,530명 (1회당 평균 8명)	1,861책 (1기관당 평균 103책)	52명 (1기관당 평균 3명)

● 지역별 운영기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총계
기관	2	1	3	2	1	2	1	2	1	1	1	1	18

CONTENTS



서울

- 01 등book 마음을 담아, 등book 꿈을 키워요! 06
| 광진정보도서관(두리하나 국제학교)
- 02 망우청소년 인생 멘토와 만나다 20
|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망우청소년쉼터)

부산

- 03 책을 통한 나의 성장 시간 26
|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부산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대구

- 04 자아를 찾아서(꿈을 이룬 앞쪽) 34
|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대구광역시단기청소년쉼터)
- 05 책과 함께하는 감성 치유-책을 통한 자기이해 42
|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6 나를 찾는 독서프로그램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늘사랑청소년센터) 50

인천

- 07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 학나래도서관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별마루) 56
- 08 김유정 문학기행 <봄봄>, <동백꽃>의 주인공이 되어보다 62
|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신명보육원)

대전

- 09 책 속에서 나를 찾다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대전시단기청소년쉼터) 70

경기

- 10 쉼터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위한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 78
|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 11 꿈 그려 DREAM!(영문학 탐색 및 세라믹 핸드페인팅) 86
| 고양청소년쉼터 동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원

- 12 희망충전소 보금자리, 미래의 꿈충전소와 함께하기 96
| 춘천교육문화관(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충남

- 13 인공지능 깨봇이 도서관에 왔어요(UCC제작) 104
| 공주시 시립도서관(공주시중장기남자 청소년쉼터)
14 강민경 작가와의 만남 | 충청남도평생교육원(사단법인 드림학교) 112

전북

- 15 꿈을 찾는 독서여행 | 전주시립송천도서관(임마누엘청소년쉼터) 118

전남

- 16 BOOK(積)BOOK(積) | 목포시립도서관(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8

경남

- 17 인형극공연 제작 및 발표 | 진양도서관(클라라의 집) 138

제주

- 18 나를 찾는 시간여행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142

부록

-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참여 기관 150

독서문화 프로그램

듣book 마음을 담아, 듣book 꿈을 키워요!

⋮

광진정보도서관(두리하나 국제학교) / 정중희

광진정보도서관 사서입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8회)
장소	두리 하나 국제학교 강의실
인원	8명(누계: 227명)
내용	한글 문해교육,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01 ...독서문화 프로그램 | 광진정보도서관(두리하나 국제학교)

듣book 마음을 담아, 듣book 꿈을 키워요!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탈북·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글 습득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 청소년들의 한글 문해 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 추진
-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돕고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응, 진로방향 설정 프로그램 추진
-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멘토링 형식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나. 추진방침

- 진단검사, 사전인성, 자아 존중감, 분노조절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장 정도 측정
- 인생 멘토 초청 강연으로 자기성장예의 동기 부여
- 지역사회 관련기관((사)새한누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과의 연계운영으로 교육대상자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

탈북·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사용이 서툴러 내용이 적은 그림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운영예산에 간식비를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TIP

삶에 대한 희망, 꿈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다. 운영 계획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1	4월 4일(화) 16:00~18:00	<오리엔테이션과 마음열기> ▶ 프로그램소개 ▶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 서약서작성 ▶ 자기소개하기 ▶ 별칭 짓기	● 「이 책을 절대로 열지 마시오」 ● 「너를 만나 행복해」 ● 「두근두근」	김은미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2	4월 11일(화) 16:00~18:00	<나는 이래요!> ▶ MBTI로 본 나와 너 그리고 우리 ▶ 나의 성격이해하기 ▶ 나는 누구인가	• 「치킨마스크」 • 「민들레는 민들레」 • 「난 커서 바다표범이 될 거야」	김은미
3	4월 18일(화) 16:00~18:00	<내 안에 있는 나와 만나다> ▶ 열등감 찾아보고 자존감 회복 ▶ 닭과 독수리 ▶ 강점과 단점 알아보기 ▶ 단점 도전하기/ 목록표	• 「갈매기에게 나를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 「문제가 생겼어요」	
4	4월 25일(화) 16:00~18:00	<감정, 그게 뭐예요?> ▶ 감정 단어 찾기 ▶ 감정 체크판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 그림 카드와 이야기카드를 이용하여 감정 스토리를 만들어보기	• 「먼지아이(영화)」 • 「빨강머리앤」 • 「비에도 지지않고」	
5	5월 2일(화) 16:00~18:00	<감정의 만남> ▶ 인사하기. 팔 부딪힘.안마하기 껴안기, 비비기 등 활동을 통한 감정 만나기 ▶ 눈감고얼굴더듬기.상대얼굴그리기등감정교류 ▶ 나의 거울. 너의 거울 ▶ 사물의 촉감 나누기	•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 •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5월 9일(화) 16:00~18:00	<내 생각을 바꿔볼까> ▶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분노 그려보기 ▶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나의 행동은? 알아차리기 ▶ 장애물 치우기	• 「난 빨강」 •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 「자유나라 평등나라」	
7	5월 16일(화) 16:00~18:00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보자> ▶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 알아차리기 ▶ 상황에 따른 느낌, 생각, 행동 ▶ 화가 날 땐 어떻게 하지? ▶ 행동하기 전에 잠깐! ▶ 화나는 감정 다루기 ▶ 역할극 ▶ 화 '풍선' 날려보내기 ▶ 해의 기술(멋있는 사람)	•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 「뒷집 준범이」 • 「효자동 파란집 장서민 대통령」	
8	5월 23일(화) 16:00~18:00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 일방통행 ▶ 쌍방통행 ▶ 의사소통 경험 나누기 ▶ want	• 「시간을 파는 상점」 • 「거짓말 같은 이야기」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 불만족과 만족의 발견 ▶ 아름다운 우리말 찾기 ▶ 북한말과 비교하기		김은미
9	5월 30일(화) 16:00~18:00	<기대하는 나> ▶ 다중지능에 대한 이해 ▶ 내 안에 보물과 네 안의 보물이 다르구나	● 「뭘해도 괜찮아」 ● 「평화의 소녀상」 ●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 「나는 인도감씨 김수로」	
10	6월 13일(화) 16:00~18:00	<여러 가지 맛의 샐러드> ▶ ebs다중지능 영상 ▶ 내 강점지능 알아보기 ▶ 강점지능간 관계 알아보기	● 「나의 살던 고향은」	
11	6월 20일(화) 16:00~18:00	<가치와 소명> ▶ 인성질문지 활용하기, ▶ 게임을 통해서 정직, 책임 등 알아보기 ▶ 가치게임 ▶ 가치 사전 만들기 ▶ 정말 소중한 것은?	● 「도서관을 구한 사서」 ● 「위를 봐요」 ● 「전쟁」 ● 「편의점 가는 기분」	
12	6월 27일(화) 16:00~18:00	<네가 있어, 참 좋아> ▶ 사회성 검사 ▶ 글자 맞추기 게임: 낱글자에 색칠하여 완성 후 문장완성 ▶ 무지개 만들기: 각자의 색종이를 나눠 가져 무지개 색을 완성 ▶ 협동과 관계력 증진	●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 「엄마에게」	
13	7월 4일(화) 16:00~18:00	<생애설계> ▶ 미리 쓰는 자서전	● 「창문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 「10대 세상을 디자인하다」	
14	7월 11일(화) 16:00~18:00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 ▶ 나를 위한 준비, 솔직함과 용기 ▶ 내 안에 왜곡된 인지 바꾸기 ▶ 나도 꿈이 있단다 ▶ 3분 말하기	● 「진로를 정하지 못한 나, 비정상인가요?」 ● 「깜박깜박 도깨비」 ● 「루빈스타인은 참 예뻐요」	
15	7월 18일(화) 16:00~18:00	<인생멘토 초청강연>		백형설 (방송인)
16	7월 25일(화) 16:00~18:00	<사과 속의 씨는 몇 개일까?> ▶ 직업 이름 빙고게임 ▶ 나의 관심은? ▶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 찾기	●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 「100만번 산 고양이」	김은미
17	8월 1일(화) 16:00~18:00	<꿈을 가져도 될까요> ▶ 영화 속의 인물비교 ▶ 나라면...?	● 「세월간이 (영화)」 ● 「보이지 않는다면」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 영화감상문 쓰기 ▶ 그림으로 표현하기		김은미
18	8월 8일(화) 16:00~18:00	<꿈을 꾸면 이루어져!> ▶ 될 수 있다 노래만들고 부르기 ▶ 서로가 멘토링 역할극	• 「진로를 디자인하라」 • 「호랑이를 탄 엄마」	
19	8월 22일(화) 16:00~18:00	<자~ 출발할까> ▶ DISC행동유형검사 ▶ 대중매체 속의 직업 알아보기 ▶ 직업카드로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행복한 고집쟁이들」 • 「반이나 차 있을까 반 밖에 없을까?」	
20	8월 29일(화) 16:00~18:00	<사라지는 직업> ▶ 직업과 소명 ▶ 직업사슬 만들기(연관직업) ▶ 직업의 편견 깨트리기 ▶ 직업! 너는 왜 변하니?	• 「오즈의 마법사」 • 「이상한 엄마」	
21	9월 5일(화) 16:00~18:00	<여러 가지 방법들> ▶ 문제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도록 창의성 훈련 ▶ 워크북 활용	• 「종이 봉지 공주」 • 「장수탕 선녀님」 • 「체르노빌의 아이들」	
22	9월 12일(화) 16:00~18:00	<합리적인 의사결정> ▶ 진로 의사결정 5단계 실습 ▶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활동 ▶ 진로장벽 극복한 사례기사 만들기	• 「뽀뽀뽀 가도 좋아」 • 「줄줄이 펜 호랑이」	
23	9월 19일(화) 16:00~18:00	<용기내자> ▶ 이것만은 꼭 고칠테야 목록작성과 방법 찾기 ▶ 실천서약 ▶ 지지하기 역할극	• 「꿈이 나를 불러요」 • 「책과 노니는 집」	
24	9월 26일(화) 16:00~18:00	<구체적인 진로실천계획> ▶ 꿈을 이룬 나의 미래 만들고 칭찬하기: 트로피 만들기 ▶ 진로 로드맵 만들기 ▶ 꿈 목록 만들기	• 「무슨 꿈이든 괜찮아」 • 「생각한다는 것」	
25	10월 10일(화) 16:00~18:00	<꽃들에게 희망을> ▶ 미리 가본 어른 ▶ 미래에서 나에게 보내는 편지	• 「나무를 심은 사람」 • 「꽃들에게 희망을」	
26	10월 17일(화) 16:00~18:00	<소망이 열리는 나무> ▶ 세계지도 그리기 ▶ 소망이 열리는 나무 만들기	•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	
27	10월 24일(화) 16:00~18:00	<자아존중감 진단검사> ▶ 사회성검사 ▶ 진로 흥미도 검사	• 「우아한 거짓말」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28		- 활동소감, 설문지조사		
	10월 31일(화) 16:00~18:00	<성장 발표회>		

라. 기대효과

- 책 읽기와 독후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인성형성의 기초 배양
- 분노조절, 갈등해결, 자기주장하기 등의 자아 존중감 형성
- 재능과 소질을 파악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효능감 기대
- 진정한 삶의 지도를 그려나가도록 공평한 기회와 배움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함.
-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 및 평생 독자 양성
- 바른 인성을 갖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 내용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비고
1	4월 4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탈북대안)	<오리엔테이션> ▶ 독서프로그램 소개 및 강사 소개 ▶ 자기 소개하기 (이름, 참여 동기, 강점 등) ▶ 우리의 약속 정하기	▶ 「너를 만나 행 복해」 ▶ 「두근두근」	● 낯설어하는 표정과 자기소개 등이 매우 쑥스럽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산만한 분위기였으나 재미있을 거 같다는 표현을 함.
2	4월 11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나는 이래요> ▶ 다름과 성향에 대한 이해를 게임식으로 진행하고, MBTI 검사를 약식으로 실시함.	▶ 「치킨마스크」 ▶ 「민들레는 민 들레」 ▶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거 야」	● 한글표현이해가 낮아 설명하는 시간이 길 었음. ● 서로의 성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심이 많았음.
3	4월 18(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내 안에 있는 나와 만나다> ▶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 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의 뜻 을 내 성향에 맞추어 이해하 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 여도 이해하는 시간	▶ 「이 책을 절대 로 열지 마시 오」 ▶ 「문제가 생겼 어요」	● 호기심 있게 들으면서 때로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에 서의 갈등을 생각하는 것 같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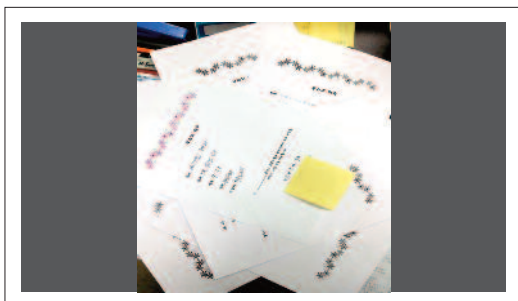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비고
4	4월 25(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나는 어떤 사람? 나를 알고 싶어요> ▶ 그림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편견이 무엇인지를 살펴봄. ▶ 숨은 그림 찾기, 착시그림 등 활용함. ▶ 각자의 유형에 대하여 좋아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좋아하는 과목, 하고 싶은 일, 진로에 대하여 개인별로 코칭함.	▶ 「비에도 지지 않고」 ▶ 「빨강머리앤」	● 처음 자기소개 시,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실제 MBTI검사를 통한 직업군을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었음. ●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음.
5	5월 2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감정의 만남> ▶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 안에 어떤 느낌, 감정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았음. ▶ 눈감고 얼굴 더듬기, 상대 얼굴 그리기 등 감정 교류	▶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 하기」 ▶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정을 표현함에 서툴고 어떤 감정인지를 잘 느끼려하지 않았음.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에는 아주 어색해 하거나, 장난스럽게 피함.
6	5월 16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내 생각을 바꿔볼까> ▶ 화날 때의 감정을 그림이나 색으로 표현해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봄으로써 화의 원인과 화날 때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함. ▶ 언제 화내게 되는 지를 각자 이야기하게 함.	▶ 「난 빨강」 ▶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화 날 수 있음을 공감 해 주고,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시를 읽음.
7	5월 23(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보자> ▶ 상황에 따른 느낌, 생각, 행동 ▶ 화가 날 땐 어떻게 하지? ▶ 행동하기 전에 잠깐! ▶ 화나는 감정 다루기 ▶ 역할극 - 화 날려 보내기	▶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 「뒷집 준범이」 ▶ 「우리 가족입니다」	● 자신을 객관화 시켜서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함. ● 비행기로 접어 “화”의 원인 날려 보내기 함. ● 끝날 즈음에는 편안하게, 일부 상기된 표정으로 적극 참여함.
8	5월 30(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 불만족과 만족의 발견 ▶ 아름다운 우리말 찾기 ▶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경험 나누기, 배운 점 나누기	▶ 「시간을 파는 상점」 ▶ 「거짓말 같은 이야기」	● 처음으로 책을 직접 읽어보겠다고 나선 날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비고
9	6월 9일(화) 13:00~18:00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한글 박물관	<현장체험학습>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물을 통한 지역과 삶의 모습을 배우며, 북한과 다르지 않았음에 같은 민족임을 더욱 알게 함. ▶ 어린이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과 놀이는 무척 신기해하면서도 즐겁게 참여하였음. ▶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과정과 한글의 역사와 한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		● 시간이 길지 않아,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 처음 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였음.
10	6월 13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아름다운 한글> ▶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 대하여 ▶ 한글발음 ▶ 스피치 훈련 ▶ 국립중앙박물관 다녀온 소감 나누기 ▶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전쟁」 ▶ 「도서관을 구한 사서」 ▶ 「나의 살던 고향은」 ▶ 「나의 사직동」	● 발음연습과 스피치 훈련을 통해, 한글을 좋아하고 한국어의 올바른 발음과 발성법을 훈련하면서 재미있어 했음.
11	6월 20(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가치와 소명> ▶ 인성질문지 활용하기, ▶ 가치사전에 등장한 단어의 개념이해 ▶ 가치게임 ▶ 가치 사전 만들기 ▶ 정말 소중한 것은?	▶ 「아름다운 가치사전 1,2」 ▶ 「어린왕자」	● 가치사전에 담겨있는 단어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자 소중한 가치사전을 만들기 함. 글자를 써보기도 하고, 자신이 왜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서로 공감하였음. 한 명씩 가치사전을 읽으면서 자신감도 보여주었음.
12	6월 27(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네가 있어, 참 좋아> ▶ 사회성 검사 ▶ 글자 맞추기 게임: 낱글자에 색칠하여 완성 후 문장완성 ▶ 무지개 만들기: 각자의 색종이를 나눠 가져 무지개 색을 완성 ▶ 협동과 관계력 증진	▶ 「뒤틀집 범준이」 ▶ 「어린왕자」	
13	7월 4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여러 가지 맛의 샐러드> ▶ ebs다중지능 영상 ▶ 내 강점지능 알아보기 ▶ 강점지능간 관계 알아보기	▶ 「뭇해도 괜찮아」 ▶ 「창문 너머도 망친 100세 노인」	● 다중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검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개인별로 다중지능검사를 하고 개별 상담을 하였음.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비고
14	7월11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생애설계, 미리 쓰는 자서전>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 ▶ 100세 시대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찾아보기 ▶ 함께 할 가족과 대화가 되는 친구, 그리고 일 ▶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야기 해 봄.	▶ 「깜박깜박 도깨비」 ▶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나, 비정상인가요?」	●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생활에서 갈등이 있음에도 표현하려 하지 않고, 지난 주에 이어 소극적이었음.(일부 아이들이 미국으로 견학차 가는 것에 대한 불만표출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 - 개인별로 격려하고 다음 주 학습은 야외학습으로 동기유발하였음.)
15	7월18일(화) 15:00~17:00 /반디&루니스	<사회적응 현장학습> ▶ 서점이란? ▶ 분야별 책 구경하기 ▶ 관심있는 분야의 책제목 읽어보기 ▶ 읽고 싶은 책 고르기 ▶ 읽고 내용 들려주기 ▶ 저녁식사		● 처음 가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반디&루니스를 보면서 '미국 같아요' '가봤어?' '아니요. 그럴거 같아요' 설레인 긴장을 표현하면서 반디&루니스에 도착, 라운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과 서있는 사람들을 구경함. ● 청소년 명작코너, 위인전, 만화, 여행수기 등 다양하게 집어 들고 코너별로 앉아 책을 읽음.
16	7월25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사과 속의 씨는 몇 개일까?> ▶ 직업이름 빙고게임 ▶ 나의 흥미유형은? ▶ 갖고 싶은 직업 찾기 ▶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 「어떤 직업이 있나요?」	
17	8월 1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꿈을 가져도 될까요?> ▶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질문함. 내가 보는 상대의 강점을 적어줌. ▶ 자신의 강점을 나열해 보고, 싫은 점을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편견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루지 못할 꿈은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라는 걸 이해하도록 하였음.	▶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 돈의 가치와 돈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음. ●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만 함.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 지에 대한 목표도 없어 보임.
18	8월 8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 꿈의 목록을 적어온 것을 발표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공부나 무엇인지를 이야기 함. ▶ 될 수 있다 노래를 만들고 불러봄.		● 지난 번 개인별 성격과 다중지능검사결과에 따른 직업 목표를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적극성을 보인 학생도 있음에 고무적임.(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공부를 하는 지도 궁금해 하였음.)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비고
19	8월22일(화) 15:00~20: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자~ 출발할까> ▶ 대중매체 속의 직업 알아보기 ▶ 4차 혁명으로 미래직업의 변화는 동영상 시청 ▶ 직업카드로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퀴즈대회 ▶ 책은 그들이 있어 세상은 희망을 품는다 편만 읽음.	▶ 「행복한 고집쟁이들」	● 4차혁명과 인공지능,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 ● 요리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사랑의 밥차를 하고 싶다고 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없게 나누고 싶다고 함.
20	8월 29(화) 15:00~20: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사라지는 직업> ▶ 4차 혁명이 오면 사라지는 직업, 미래는 어떤 직업이 생길까 ▶ 직업이 주는 가치는 무엇일까? ▶ 직업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 ▶ 역사와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	▶ 「행복한 고집쟁이들」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크게 보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책 읽기 숙제 발표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21	9월5일(화)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여러 가지 방법들> ▶ 문제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도록 창의성 훈련 ▶ 워크북 활용	▶ 「창의성, 그게 뭐예요?」	● 그림검사를 통해 창의성 검사를 하고, 사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그 맛이 조금씩 다르듯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고, 결과도 다름을 이야기 나눔.
22	9월 13일(수)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합리적인 의사결정> ▶ 진로의사결정 5단계 실습 ▶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활동 ▶ 진로 장벽 극복한 사례기사 만들기	▶ 「뽀뽀뽀 가도 좋아」	●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했으나, 돈을 버는 것이 꿈이고 목표라며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고, A가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고, 폭력적이 되어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게 되었음.
23	9월20(수) 15:00~20: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용기내자> ▶ 이것만은 꼭 고칠 테야 목록 작성과 방법 찾기 ▶ 실천서약 ▶ 지지하기 역할극	▶ 「뽀뽀뽀 가도 좋아」	● 고치고 싶은 습관을 찾아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음. ● 한 사람씩 자신의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고 발표하도록 함. ● 마치면 “될 수 있어~ 너 꼭 꿈을 이룰거야” 박수로 격려해주었음.
24	9월 27(수) 15:00~20:00 /두리하나 국제학교	<구체적인 진로실천계획 세우기> ▶ 꿈을 이룬 나의 미래 만들고 칭찬하기(트로피 만들기) ▶ 진로 로드맵 만들기 ▶ 꿈 목록 만들기	▶ 「뽀뽀뽀 가도 좋아」	● 각자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함. 기다린 보람이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해 보였음.
25	10월11(수)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꽃들에게 희망을> ▶ 미리 가 본 어른 ▶ 미래에서 나에게 보내는 편지 ▶ 워크북 활용	▶ 「꽃들에게 희망을」	● “자유”를 갖기 위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가도, 막상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에는 두렵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4명은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이어나갔음.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비고
26	10월18일(수) 15:00~17: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소망이 열리는 나무> ▶ 세계지도 그리기 ▶ 소망이 열리는 나무 만들기 ▶ 두 팀으로 나누어 본인이 알고 있는 세계지도, 궁금한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를 그리고 단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감. ▶ 그린 그림을 팀을 바꾸어 느낌을 이야기 하고,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확장시켜 나감. ▶ 이후 팀을 바꾸어 그림을 완성시키고, 소망의 단어들을 적어보게 하였음.	▶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	● 바꾸어 그림을 완성하고 검정바탕에 소망의 단어들을 적을 때는 보다 순화되었음.(아이들이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억눌린 감정들에서 해방되고 싶어하였고, 일부 아이들은 다툼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개별 코칭을 하였음.)
27	10월25일(수) 15:00~20: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자아 존중감 진단검사> ▶ 사회성 검사 ▶ 진로 흥미도 검사	▶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	● 5명 외에는 사회성 검사나 진로 흥미도 검사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동의 변화를 깨닫도록 지도하였음.
28	11월1일(수) 15:00~20:00 /두리하나 국제학교	<성장 평가회> ▶ 첫 째 시간에는 27차시까지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진로 탐색, 꿈을 향한 로드맵과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소감을 나누고,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스토리텔링하였음. <특강 : 백형설 칼럼니스트> ▶ 중국에서 태어나 춤고 배고 찢던 시절에 선생님께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여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계에서 일하고 미국에서 50년 살면서 이겨냈던 실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공감과 교훈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음.	▶ 「뽀뽀뽀 가도 좋아」	● 아이들이 교실도 깨끗이 정리하고 반듯하게 앉아서 듣고자 하는 태도가 “변화”였음. ● “책을 추천해 주세요”가 큰 변화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참여 학생들의 한국어 활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됨.
- 현장체험학습(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한글박물관)을 통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소 갖게 되었음.
- 책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학생들의 책과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됨.
- 주1회의 지속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와 참여 학생 간 친밀감 형성.개인 상담 등의 변화가 눈에 띄었고,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었음.
- 자신의 역량 개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꾸준한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미래설계, 진로개발 등에 도움을 줌.

나. 아쉬운 점(보완할 점)

-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 및 참여자 변경(중등 검정고시 합격자의 퇴소, 대안학교 입소 및 자퇴학생 발생 등)으로 활용도서 및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함.
- 본 프로그램 시행 전, 사전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육(발음, 내용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 : 박물관, 서점 등을 방문. 이외에 공연 관람 등의 기회 제공으로 한국문화 체험기회 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우리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탈북 및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국가와 가정으로부터의 심한 배신감과 경계심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 사진촬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

부모로부터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습관지도 및 인성지도, 성역할, 성교육 등이 부족한 실정임.

TIP

수업 중 발생하는 돌발 행동(물건 투척, 성적 행동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지도 교사 소감

몇 해 전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실습자 중 탈북민이 있어 탈북민에 대한 다소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탈북민과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들이라 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여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그 나이에서 가지고 있는 발달과업과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처한 상황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그 친구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탈북 및 중도입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을 우리나라 청소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연결되어서 이 친구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리 잡고 보통의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망우청소년 인생 멘토와 만나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망우청소년쉼터) / 담당사서 김계숙

청소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긍정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1월 (8개월, 총 24회)
장소	망우청소년쉼터
인원	10명(누계: 170명)
내용	멘토 이옥수 작가와의 만남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망우청소년 인생 멘토와 만나다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배경

- 정독도서관 청소년관은 2015년 10월에 개설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진로·독서토론·독서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적극 확대 운영 하고 있으며, (연합운영)독서토론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하고 있다.
- 책을 매개로 쉼터청소년이 마음을 열고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나. 추진목적

- 심리적·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쉼터 청소년들에게 인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 멘토와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자 한다.
- 책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 추진방침

- 망우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멘토에게 쉼터 현황 및 특성 안내한다
- 청소년이 적극적 참여토록 쉼터 담당자를 통하여 멘토에 대한 사전 공지한다.
- 멘토의 강의 및 쉼터 청소년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병행하여 상호 공감대가 형성토록 유도 한다.
- 쉼터청소년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청소년소설가를 섭외 한다.

재학중인 쉼터 청소년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진행

참여자들과 멘토와의 원활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멘토(작가) 및 멘토의 작품 등 소개글을 담당자에게 사전에 메일 발송하여 읽고참여토록 안내

TIP

멘토의 소설 등을 강의실에 전시하여 작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

라. 운영계획

- 프로그램명 : 망우 청소년 인생 멘토와 만나다
-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0:00 ~ 12:10
- 대상 : 망우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
- 장소 : 망우청소년단기쉼터
- 운영 내용 : 인생 선배로서의 삶&책 속 주인공 이야기, 질의 응답 등
- 멘토 : 작가 이옥수(「개 같은 날은 없다」, 「어쩌자고 우린 열일곱」 등 저자)

마. 기대 효과

- 쉼터청소년들에게 멘토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 한다.
- 저자와의 만남을 통한 책에 대한 호기심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인생 선배로서의 삶 및 책 속 주인공 이야기
- 참여 청소년들의 이야기
- 질의 응답
- 격려의 글쓰기 등

나. 운영일정

- 운영시간표

운영시간	세부 운영 내용	비고
09:30~10:00 (준비)	- 홍보문 부착 - 강의실 내 작가 작품 전시	
10:00~12:00 (강연)	- 강연 및 책에 대한 질의응답 - 작가에게 격려의 글쓰기	
12:00~12:10 (마무리)	- 작가와 사진 찍기 - 도서 증정	

다. 준비사항

- 도서 : 멘토의 작품(도서) 강의실내에 전시
- 간식 : 쉼터 준비
- 기념품 : 쉼터참여자에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수첩 준비
- 홍보문 게시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청소년 문학 작가와 만남을 통하여 쉼터청소년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 멘토의 삶과 멘토의 작품속의 주인공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쉼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 추진목적

- 심리적·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쉼터 청소년들에게 인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 멘토와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자 한다.
- 책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 아쉬운 점

- 단기쉼터라서 참여자의 수시로 변동이 있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멘토 섭외시 독서프로그램에서 멘토의 작품을 활동도서로 수업 후 운영하면 참여자들이 모두 적극적이 될 것이다.

참여 청소년 소감

이옥수 작가님

저는 작가님의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책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작가님 이야기를 담은 책도 들어보고 공감하고 싶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제 위로 형제들이 있는데.. 저도 골통치급 당해요... 그리고 저도 악쓰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웹툰작가가 될거예요!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유명해지면 연락드리고 싶어요.

(2017.7.25. 송○○ 올림)

참여
청소년
소감

이옥수 작가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저도 작가가 되면 선생님이 제 동생을 위로해준 것처럼 저도 선생님하고 다른 친구들을 위로해 줄게요. (2017.7.25. 서○○)

참여
기관
소감

독서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때로는 화가 나는 것들에 대해,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 가족에 대해 스스로 읽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또 다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유독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약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아닌 '발아돌임'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심터 인권교사 김선혜)

강사
소감

아픈 상처를 직시하는 것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지켜보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힘없는 소녀들이 살기 힘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터 친구들을 만나면서 슈마허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좋은 일을 통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강사 이은경)

사서
소감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망우청소년단기심터를 방문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다. 독서프로그램이 처음이라 다소 부담은 있었지만 회차를 거듭 할수록 책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기심터라서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 갔지만 긴 인생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난 책이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옥수 작가님
저는 작가님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책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작가님 이야기를
듣는 책도 들어보고 공감하고 싶어
저도 작가님처럼 제 위로 형제들
있는데, 저도 플루치담 동생... 음
그래도 저도 악보면서 공부 열심히해
입문작가가 될게요!
오늘 5집 감사합니다!
2017. 7. 25. 화

5元
2017. 7. 25.
이옥수 작가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저도
작가님이 되면
선생님께 제 동생을
위로해준 것처럼
저도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을 위로해줄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작가라는 꿈 접지마세요 (ㅠ)
어찌자고 무인 영일읍 책을 읽
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ㅠ)
앞으로도 좋은책 많이 만들어주
세로 사랑합니다 (2017. 7. 25)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을 통한 나의 성장 시간

⋮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부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최 정 혜

‘그래도 독서는 해야 한다.’ 도서관 경력 20년에 어린이실 근무는 초보 사서이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흥미롭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쉼터 청소년들에게는 독서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으며

나에게도 역시 책과 독서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다.

⋮

기간 2017년 4월 ~ 9월 (6개월, 총 26회)

장소 부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인원 4명(누계: 101명)

내용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 까지 연령 층이 다양하지만 입소인원은 5명에 지나지 않는 장기 청소년 쉼터이다.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몇 명의 청소년이 쉼터를 방문하여 간간히 참여 하였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으며 독서 흥미도는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난독증으로 학교 수업을 받기도 힘든 아이도 있었다. 독서프로그램은 자기표현, 기다림, 친구, 가족, 사랑 등의 주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독서활용매체를 그림책, 시에서부터 시작해 영화, 장편문학 등을 활용해 점진적 독서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독서체험프로그램으로는 문학관탐방, 서점나들이, 판소리, 연극놀이 등을 접목하여 26회로 운영하였다.

책을 통한 나의 성장 시간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이나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양서를 알게 해주고 독서력과 이해력을 도와주고자 함.
-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쉼터는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이 1년에서 3년까지 장기 이용하는 중장기 쉼터이므로 지속적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함.

나. 추진방침

-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19:00~21:00 주1회, 8월 방학에는 주2회로 총 26회 프로그램으로 운영
- 매월 선정된 활용도서는 전월 학생들이 읽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가에 비치하고 틈틈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 권장

도서관과 쉼터와의 물리적 거리

- 연계기관인 쉼터를 자주 방문해야 하는 곳이므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는 곳 선정

독서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과 청소년의 독서흥미수준 고려

-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단기가 아닌 중장기 쉼터로 선정

사전 담당자와 협의 시 청소년들의 독서수준 및 흥미도 체크

TIP

다. 운영 계획

- 독서치료프로그램 특성상 대주제 아래 소주제로 범위를 좁혀 책임기의 즐거움과 강사와 청소년들과 친밀도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 1차시 자기표현을 시작으로 자기이해와 타인 이해관계 맺기를 접하고 점차 가족과 자기강화, 22회차시에는 자기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는 수업을 운영
- 10월까지 수업이 길다는 쉼터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8월 방학 중에는 주2회 수업을 진행, 그 중 1회는 독서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
- ‘가족’이란 주제는 청소년들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주위의 우려와 수업 전개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극복해야 할 주제이므로 친밀감 형성 후, 활용 도서를 바탕으로 마음 들여다보기 수업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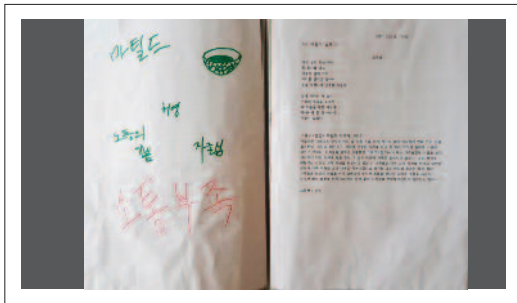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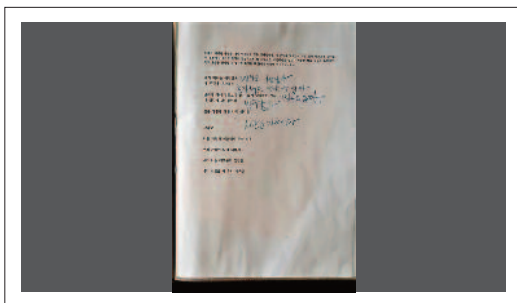
라. 기대 효과

- 독서와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 성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가 독서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음.
- 금정구 내 문학관 견학, 도서관 이용을 익숙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 공간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자발적으로 문학관 백일장대회 및 독후감상문 대회에 참여, 입상하기도 함.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일시	2017년 7월 20일, 27일, 8월 1일 19:00~21:00		장소	청소년쉼터
주제	가족			
내용				
시작	쉼터 아이들은 가족 상처가 큰 친구들이라 집단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까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극복되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아프다는 것이 책으로, 영화로 이야기될 때 위안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걱정 인형 만들기'로 힘을 북돋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집단 흥미도를 고려하여 작은책, 가면, 부채, 소원 팔찌, 잡지책을 활용한 콜라주, 사진 구성, 주머니 만들기 등을 작업했다.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기를 고민했다.			
진행	7.20. 가족1	학교행사 등으로 참여인원은 2명의 청소년과 이야기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그림책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청소년들이라 선정도서 「우리 가족입니다」로 시작, 이 그림책이 전개하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수용이 잘 안 되는 이야기였다. 참여자의 상처가 큰 듯했고 자기 이야기 형식(이야기치료)으로 독특한 결과(긍정성) 발견하기를 시도했으며 긴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눴다.		
	7.20. 가족2	선정된 소설 「변신」을 읽고 가족을 비판하고 그림책 「변신」을 통해 다른 이야기 가능성(지향점)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었다. 동영상 「아이들의 집」도 함께 보며 부모의 문제 원인을 살펴보았다.		
	7.20. 가족3	영화화<길버트 그레이프> 편집 동영상을 보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집단에게는 이 영화가 오히려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소설로 읽지 못했던 가족 1<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영화를 보았다. '걱정인형 만들기'를 하며 걱정을 버리기로 했다.		
마무리	7.20. 자기 칭찬하기, 7.27. 생각 정리하기(내가 꿈꾸는 가족) 8. 1. 걱정 버리기 걱정인형 만들기를 무척 좋아했고 이 주제로 무거웠던 참여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기에 이들 집단에서는 좋은 매개체였다. 중편 소설 「변신」도 흥미로워했고 동영상 <아이들의 집>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고 부모님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에, 미래 부모로서의 자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서의 활용이 좋았다.			



나. 운영일정

- 19:00 ~ 20:10 독서활동 (책, 영화 보기)
- 20:10 ~ 20:40 독후활동 (그리기, 쓰기, 만들기)
- 20:40 ~ 21:00 함께 나누기

다. 준비사항

- 활용도서 : 소설 『변신』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영화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그림책 『우리는 가족입니다』, 『변신』
- 준비물 : 싸인펜, 색연필 등 각종 문구류, 걱정인형 만들기 재료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독서력 증진 : 난독증이 있다고 한 친구(스키마가 부족하여 대학 수업집중력이 떨어짐) 책읽기가 향상되었고 지식과 교양에 대한 자기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원래 책읽기를 좋아했으나 무기력함이 있던 참여 학생은 다시 책(특히 그림책)에 흥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글쓰기 하여 자발적으로 문학관 백일장에 참여하여 고등부 참방을 수상
- 쉼터 학생들간의 관계 개선 : 책(영화)을 매개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간 이해와 서로간의 배려와 경청의 폭이 넓어졌음.
- 자기 이해와 진로 진학 도움 : 다중지능검사와 간이 MBTI 등 자기이해 검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됨.

나. 아쉬운 점

- 기획 의도는 판소리, 연극 등 직접 체험해보는데 의미를 부여했으나 국악공연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 관람 등도 좋은 경험이 될 듯함.
- 학생들이라 다른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주말 독서 시간 확보와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방학 프로그램 고려
- 예산대비 참여 인원이 적은 점과 수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참여 학생들이 힘들어 함.

참여 청소년 소감

오○○ 독서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왜 해야 하는지를 몰랐으나 내가 알지 못했던 문학작품을 읽고 그 담긴 내용을 알았을 때 책을 읽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중 허영심이나 거짓말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모파상의 목걸이 작품이 인상에 남는다. 너무 길어 힘들었다.

변○○ 독서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책을 읽어야 하는 재미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림책의 재미와 그림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고 책을 천천히 읽는 힘도 길러졌다.

허○○ 책을 전혀 읽지 않았을 때가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화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읽어주셔서 좋았고, 영화도 보고 서점 나들이도 재미있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김○○ 독서프로그램은 나의 마음과 기분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같이 생활하는 언니들과 이야기 하면서 나에 대해 더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영화도 보고 좋은 책도 알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

참여
기관
소감

프로그램의 성격상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입소청소년들의 일정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적 독서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프로그램 이었다. 감사님이 청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긴 회기임에도 금방 지치지 않았던 것 같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서로 의사소통이 좀 힘들었으나 경청과 배려의 힘을 배울 수 있었고 자신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강사
소감

참여 학생들과 시간이 맞지 않거나 참여 학생들의 사전 독서 결여로 2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체로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보람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지식과 교양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의 잠재적 사고력과 회복탄력성이 높게 발견되었다. 이들의 사고력 향상과 자신 속의 숨겨진 학구열을 발굴해내려는 노력을 격려하고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글쓰기 능력 향상 등) 심화적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사서
소감

참여 학생소감을 한명씩 입력하면서 순진한 친구들 얼굴이 눈에 선하다. 책읽기에 대한 흥미와 애초 기획했던 대로 교양으로 알고 있는 문학을 접한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 의의를 두고 싶고 쉼터 청소년들이 장래 사회에 진출하여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부록

“빨간 나무”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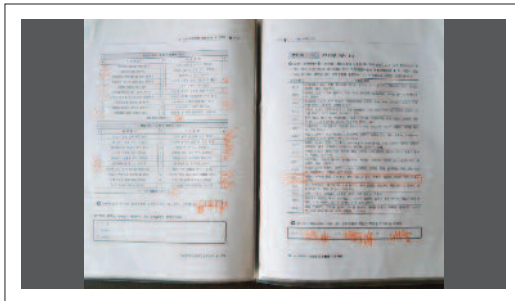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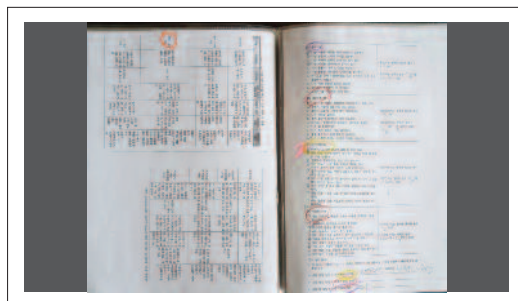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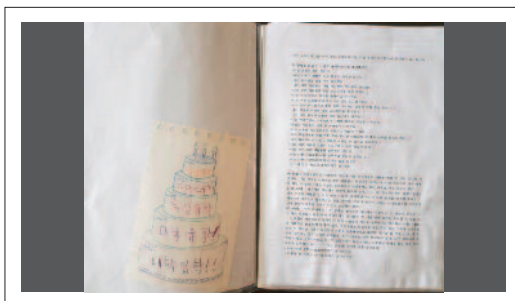
○○고등학교 이름 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약 반년동안,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책을 좋아했으나 책임기가 즐겁지 않았다. 그러다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림책 “빨간 나무”(손 태 지음, 풀빛 펴냄)를 만났다. 간결한 문장과 커다란 그림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었다. 다른 그림책들과는 다르게 어두운 분위기를 뿜어내었는데도 책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림책을 진작 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올 지경이어서, 그림책에 감동하는 동시에, 나를 이해해주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게 느껴졌다. 평소에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라며 보지도 않았던 얇은 그림책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나는 알게 되었다.

책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슬픔과 괴로움이 배경으로 느껴지지만, 무표정의 단발머리 주인공은 힘듦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린다(‘기다리고 기다립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다란 생각의 터널을 지나 희망인 ‘빨간 나무’를 발견하는 순간, 드디어 밝게 웃는다. 그림책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의도하였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독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장면은 ‘내게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나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하 생략)

-영광도서 글짓기대회 참여



자아를 찾아서 (꿈을 이룬 잎삭)

⋮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대구광역시단기 청소년쉼터) / 안정옥

공공도서관 근무 경력 29년,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평생교육강좌,
다문화, 소외계층, 장애인 프로그램, 자료실 운영 등
도서관 업무 전반

⋮

기간	2017년 4월~11월 (8개월, 총 29회)
장소	대구청소년지원센터, 단기쉼터(4층, 세미나실)
인원	7명(누계 : 221명)
내용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자아를 찾아서(꿈을 이룬 잎씩)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문해력 · 창의력 향상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책(독서)을 매개로 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동기를 도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나. 추진방침

가출 청소년들이 선정 도서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고, 글쓰기를 통해서 독서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문화 활동을 접목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독서치료 프로그램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게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TIP

다. 운영 계획

- 독서치료 전문가와 함께 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출 청소년들의 심리, 진로, 가족관계 등에 따른 상담 치료 병행하여 운영

라. 기대 효과

-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글쓰기 치료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기이해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자존감 향상에 기여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단기 청소년쉼터에 기거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크게 '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주변에 관심 갖기', '내 꿈을 찾아서'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반부에 '짧은 귀 토끼', '프레드릭', 영화 '미라클 벨리에' 중반부에는 '자아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맞는 도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주요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미니 공연하기 등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특히 '앞썹'이 마당을 나온 부분, '앞썹'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알을 품기 시작한 부분, 알에서 깨어난 청둥오리 '초록머리'와의 대화 장면, 초록머리를 살리기 위해 족제비와 타협하는 '앞썹' 등 친구들이 감동스러워 한 부분을 교구로 제작하여, 동화구연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3차시 중 1차시에는 책이 두꺼워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를 했다.
- 2차시에는 공연할 부분을 선택하여 미니 공연을 위한 시나리오를 쓰고, 읽고 연습도 하였다.
- 3차시에는 미니 공연을 위한 소품(앞썹, 족제비, 아빠 청둥오리(나그네), 아기 청둥오리(초록머리)) 만들기를 하였다. 먼저 A4용지에 책 속의 인물에 해당하는 캐릭터 개발하고, 펄트지나 부직포, 글루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이 탄생되었다. 앞치마에 녹색 시트지를 붙이고 나무나 연못도 만들어 배경을 만들었다. 각자가 만든 인물 뒷면에 찍찍이를 붙여 쉽게 뗄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앞썹이 첫 번째 꿈인 알을 품어 병아리를 키워내는 꿈을 이룬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는 소감을 이야기 했고, 아 들인 초록머리를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는 안타깝다는 소감도 있었으며, 두 번째 꿈인 날고 싶은 꿈을 이룬 장면이 나올 때는 책 속의 앞썹이 되어 함께 슬퍼하기도 하였다.
-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각자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활동으로 '앞썹'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를 하고 발표를 하였다.
- 친자식이 아닌 아들을 잘 키워내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어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이루어내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식을 위해 마지막에 목숨을 내 놓는 모성애를 보여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등 다양한 상장 문구를 만들었다.

나. 운영일정

- 매주 화요일 19:00~21:00

다. 준비사항

- 프로그램 계획안에 제시된 도서, 각자 감사 일기를 쓰기 위한 일기장, 문구(색사인펜, 유성펜, 색연필, 도화지, 색도화지, 전지, 캘리그래피 펜과 캔버스, A4용지, 실, 풀, 가위, 펠트지, 부직포, 글루건 등)
- 간식-빵, 다과, 음료, 과일 등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가출 청소년들이라 학업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지급된 '새 책'은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었고 선정된 책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다방면으로 사색할 수 있고 싫증이 나지 않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림책 위주의 책이라 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책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 또한 독서치료로 발달적 혹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자신과 타인을 알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끝으로 7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하는 성취감을 맛 본 점과, 책으로 위로를 받고 간접경험을 몸소 체험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에 유능한 독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아쉬운 점

- 일부 참여자의 경우 입소, 퇴소가 잦아 '독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가 안타깝고 아쉽다.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 더 좋았으리라 확신한다.

지도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주제의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양질의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TIP

참여
청소년
소감

배○○

‘마당을 나온 암탉’ 속 주인공 잎삭은 양계장에서 먹고 자고 알이나 쑥쑥 낳는 암탉의 삶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찾는 암탉으로, 어찌보면 누군가 정해주는 인생에서 자신이 결정하는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내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캐릭터로서의 느낌이 느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 속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의 진취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잎삭도 분명 그런 부류의 인물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최○○

잎삭은 암탉이다. 잎삭은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 난용성 암탉이었지만 퇴계가 되어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게 되어 주인 부부는 한눈을 판 사이에 도망을 쳐 그토록 원하던 마당으로 나왔다. 하루밤을 보내고 텃새를 못 이긴 잎삭은 대문 밖 세상으로 나와 큰 세상을 마주하였다. 그 순간 새하얀 띠끈띠끈한 금방 낳은 알을 마주하였다. 알을 품고 싶어 했던 잎삭은 욕심이 생겨 누구 것 인지도 모를 알을 품어버렸다.

잎삭처럼 어려운 역경도 용기있게 잘 해결해 나가는 멋진 생각을 갖고 싶다고 느꼈다. 잎삭은 마당식구들의 텃새에 못 이겨 마당을 나가게 됐지만 나가서도 역경을 해결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는 것을 보며 잎삭이 대견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모성애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다.

백○○

수업할 당시 나는 청소년심터를 들어온지 얼마 안됐고 잡생각이 매우 많았다. 괴로운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힘들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부직포를 만들며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구경할 때만큼은 그 생각들이 들지 않았고 그 순간을 즐겼다. 나는 같이 수업을 듣는 언니들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처음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그리고 있는게 맞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주눅도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린 암탉(잎삭)을 부직포로 만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내가 만든 잎삭이는 목덜미 빠진 앙상한 암탉에 볼품없어 보이는 캐릭터였지만 부직포로 털이 빠진 목부분이 잘 표현되었고 나는 매우 만족했다. 다 만든 후에 나는 사진을 찍어서 자랑도 했다. 생각보다 부직포로 인형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는 동안 잡생각도 없어졌고 그 순간을 즐기고 완성된후 뿌듯했다.

참여
기관
소감

대구광역시단기청소년쉼터 담당 이현정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큰 기대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가출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책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자신이 직접 책을 사보거나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없었는데 프로그램 하는 중간 중간에 새 책을 지급하면서 선물을 받는 것 같으며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서 편안하게 자신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중간에 포기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책에 대한 좋은 경험과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강사
소감

꽃샘추위가 한창인 2월부터 대봉도서관 담당 사서와 협력하여 단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입소생 대상으로 하는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준비하여 드디어 4월 11일 7시, 쉼터를 방문하여 처음 친구들을 만났다.

꼭 다문 입, 불만의 얼굴, 싸늘한 눈빛, 처음 설레던 가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 이 난국을 어찌 극복할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이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던 친구들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인연으로 남았다.

구직활동을 하던 난희(23세, 가명)가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더니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여 열심히 사회에 적응중이다. 어린 시절 우울증, 강박증세를 보여 왔다는 무학력의 태희(22세, 가명), 지속적인 책 읽기와 생각나누기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으며 체육학과를 진학하여 후에는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싶단다. 또래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지영(18세, 가명)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여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기를 소망한다. 카테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최민희(18세, 가명)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한 청소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올해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선물을 받았던 책들을 보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친구들에게 자기만의 책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혜안과 대봉도서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추후 상담을 계획하여 친구들을 만날 두 번의 기회를 주신 대봉도서관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감사드린다.

사서
소감

처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처음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에 대해 알려주고 회원증을 만들어 책을 대출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청소년들과 똑 같았다. 먹는 걸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그러나 사진 찍는 건 싫어하는 모습이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열심히 하던 아이가 한보이기도 하고 낯선 얼굴이 보이기도 하여 계속 참여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지만, 연극관람, 북콘서트, 멘토특강 등을 함께 하면서 참여한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아이들도 밝은 모습으로 먼저 인사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프로그램 신청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과 함께하는 감성 치유

-책을 통한 자기이해

...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류분자

학교 울타리 안의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도 모두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8회)
장소 서부도서관 5층 강의실
인원 8명(누계: 228명)
내용 독서프로그램으로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등 20회,
인생멘토 특강 등 6회,
문화 관람으로 택시운전사 등 2회

05 ...독서문화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과 함께하는 감성 치유 - 책을 통한 자기이해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진로방향등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추진방침

- 마음이 닫혀있는 청소년들 위해 마음 동반자 개념으로 상담자격과 독서치료 자격을 가진 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 함.

다. 운영 계획

회차	일시/장소	프로그램 내용
1	4월 13일(목) 13:00~15:00 / 서부도서관	도서관 알아보기 ▶ 책이음회원증만들기, 도서관이용 해보기 등 ▶ 도서: 「나는 나의 주인」
2	4월 20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1차시) ▶ 책을 통해 나를 표현하기 ▶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 도서: 「줄무늬가 생겼어요」
3	4월 27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2차시) ▶ 책속에서 나를 찾기 ▶ 자신이 잘하는 것 찾아보기 ▶ 도서: 「더 느낌」
4	5월 4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3차시) ▶ 책을 통한 가치관 찾기 ▶ 내안의 보물 찾기 ▶ 도서: 「더 나눔」
5	5월 11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4차시) ▶ 책을 통한 자기이해 ▶ 나의 장점 찾아보기 ▶ 도서: 「꽃들에게 희망을」

회차	일시/장소	프로그램 내용
6	5월 18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5차시) ▶ 책을 통한 가족애 찾기 ▶ 나를 찾아서 ▶ 도서: 「민들레는 민들레」
7	5월 25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6차시) ▶ 내 마음 표현하기 ▶ 도서: 「포기하는 용기, 위저드 베이커리」
8	6월 1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7차시) ▶ 책을 통한 가치관 찾기 ▶ 가족애 찾기1 ▶ 도서: 「나의 엄마」
9	6월 8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8차시) ▶ 책을 통한 가치관 찾기 ▶ 가족애 찾기2 ▶ 도서: 「아빠 생각」
10	6월 15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9차시) ▶ 책을 통한 우정 찾기1 ▶ 친구의 마음 알기 ▶ 도서: 「호기심」
11	6월 22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 (10차시) ▶ 책을 통한 우정 찾기2 ▶ 친구의 마음 알기 ▶ 도서: 「싸워도 우리는 친구」
12	6월 29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인생멘토 특강,1 ▶ 꿈을 향한 도전 ▶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13	7월 6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예술인과의 만남,1 ▶ 주먹을 꼭 써야할까 역할극 관찰
14	7월 13일(목) 13:00~15:00 / 서부도서관	예술인과의 만남,2 ▶ 주먹을 꼭 써야할까 역할극에 관한 내 행동
15	7월 20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예술인과의 만남,3 ▶ 연극으로 배우는 인생1
16	7월 27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예술인과의 만남,4 ▶ 연극으로 배우는 인생2
17	8월 3일(목) 13:00~15:00 / 서부도서관 롯데시네마	영화관람 및 이야기 나누기 ▶ 영화: 택시운전사 ▶ 감성치유 I 마무리 이야기 나누기
18	8월 10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1차시) ▶ 나의 삶 살펴보기 ▶ 나는 누구인가? ▶ 도서: 「나를 찾아가는 질문들」

회차	일시/장소	프로그램 내용
19	8월 17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2차시) ▶ 나의 단점과 장점 알아보기 ▶ 내 마음의 CCTV ▶ 도서 : 「유진과 유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20	8월 24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3차시) ▶ 관계 형성(나에게 친구란?) ▶ 도서 : 「햄릿」
21	8월 31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4차시) ▶ 생각으로 책 읽기(내가 진짜 원하는 것) ▶ 도서 : 「뛰어라 메뚜기」
22	9월 7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5차시) ▶ 독서 후 마음 나누기 ▶ 시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3	9월 14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롯데시네마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6차시), 영화관람 ▶ 자아 찾기 ▶ 도서 : 「휴대폰 전쟁」 ▶ 영화 : 살인자의 기억법
24	9월 21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7차시) ▶ 독서의 놀라운 힘(책과 여행) ▶ 나의 느낌과 생각 표현하기 ▶ 도서 : 「마음의 집」
25	9월 28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8차시) ▶ 책을 통한 성장 ▶ 내 삶의 진짜 영웅이 되기 ▶ 도서 :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
26	10월 12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9차시) ▶ 책 읽은 즐거움 ▶ 책으로 나를 돌아보기
27	10월 19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감성치유 II (10차시) ▶ 시 ▶ 시 다시 쓰기 ▶ 도서 : 시집 「풀꽃」
28	10월 26일(목) 15:00~17:00 / 서부도서관	인생멘토 특강,2 ▶ 내 꿈을 찾아서 ▶ 마음껏 꿈꾸고 펼쳐라

라. 기대 효과

-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감 및 자존감 향상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아직은 서툰 아이들, 고정적으로 오는 아이가 있는 반면 주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한두 명 오면 경계의 눈빛으로 모르쇠다. 불안한 눈빛,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탕탱볼 같은 Y(18살),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학교가 의미가 없어서 그만두었다. 엄마는 늘 없었다. 할머니 손에 자란 Y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는 날이 싫다. 여자 친구도 있지만 오래 사귀지 못한다. 무책임한 부모가 되기 싫어서란다.
-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남성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는 J(18살), 낯선 남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멘토 특강수업에 쪽방소장님께서 들어오자 눈동자가 커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경계를 했다.
-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K(17살), 심심해서 수학문제를 풀 정도로 공부를 잘 하고 착한 아이다. 그러나 ‘넌 잘하니까?’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내는 기대치로 인해 상처 받은 아이다. 마음이 여리다.
- 학교를 그냥 그만두었다는 H(18살), H가 다닌 학교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전문고등학교로 한 학급에 자퇴한 학생이 기본 4~5명이 될 정도이고 학습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고 지각과 무단결석으로 순하고 느린 성격의 H 성격상 적응하기 힘든 학교다.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과 의 문제로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C(18살), 늘 일찍 와서 기다리는 C는 모범생이다. 선생님과 의 갈등에서 부모님의 태도에도 상처를 받아 부모님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의 가정 폭력과 부모님의 태도에서 상처 받아 자신의 방에서 밖으로 나오기 까지 힘이 들었다. 첫 시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마가 선생님처럼 제 얘기를 들어주었다면 저는 달라졌을 거라며 울었다.
- 오늘도 제일 먼저 온 C가 웃는 얼굴로 반겨준다. 책을 통한 감성치유이지만 개개인의 문제점이 다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 책 「꽃들에게 희망을」은 적은 글 밥과 그림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읽기에 좋은 책이었다.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아이들은 조금은 후회되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에 만족한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다. 책 읽기 싫다는 Y도 책을 읽는다.
- 책을 읽고 난후 느낌을 물었다.
- Y는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요. Y다운 대답이다.
- J는 무언가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해요. 저는 그러지 못 했거든요.
- H는 애벌레가 저보다 빠른 것 같아요.
- C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대단해요. 저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거든요.
- K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 책 속에서 ‘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 Y는 공부요. 모든 애들이 무작정 공부만 하잖아요.
- J는 저 자신 같아요. 제게는 제가 넘어야 할 산 같아요.
- H는 저는 학교요. 학교가 제게는 산이에요.
- C는 저는 제 방요. 방에서 나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 K는 저는 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요. '넌 잘하니까.' 그 말이 정말 싫어요.
- 책 속의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 또는 여러 애벌레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물었다.
- Y는 저는 빨라서 꼭대기에 갔다가 내려오는 1등 애벌레요.
- J는 저는 애벌레가 아니라 아직 알 속에 갇혀 있어요. 무언가(목표)를 향해 가본 적이 없어요.
- H는 저는 탑에 올라가는 애벌레도 아니고 땅에서 탑을 향해 기어가는 맨 끝의 애벌레가 저인 거 같아요.
- C는 저도 J와 같아요. 저도 목표를 향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 K는 저는 호랑애벌레에 가까워요. 애들이 다 공부하니까 생각 없이 공부만 했어요. 여러분은 탑을 향해 기어가는 애벌레의 삶을 버리고 노랑애벌레와 같은 나만의 삶을 선택했다. 노랑애벌레처럼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정해보고 목표를 향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다. 지난주 자신의 꿈이나 잘 하는 것이 있으면 생각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 지어 대답하라고 하였다. Y 경찰이요. 먼저 검정고시 통과하고 운동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해서 4품 딸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학원 1년 다녀보고 시험 쳐서 안 되면 그만둘 거예요.
- 1년? 경찰공무원 시험 적어도 5년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했더니 성격이 급해서 안 되면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야 된단다. 그래도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거라고 해주었다.
- J는 아직은 무언가를 시작하려니 겁이나요. 그래도 J야 목표가 있으면 삶이 즐거워진단다. 했더니 제가 뭘 잘 하는 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분명 네가 잘 하는 게 있을 거야. '네'한다. H는 요리사요. 셰프? 멋지다.
- 일단은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요리학원도 다닐 거예요. 진짜? H가 해주는 요리 먹고 싶다. 제가 파스타는 만들어드릴게요.
- C는 아직 꿈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있니? 물었더니 네일아트요.
- K도 아직은 뚜렷하게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게 없단다. K는 뭘 해도 잘할 거야. 했더니 그런 게 부담스럽단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보고 좀 지나면 찾아볼게요. 한다.
- 활동으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한마디 또는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속의 한구절을 캘리그래피 글씨로 쓰게 했다. 아 이들에게 생각나는 글귀가 없으면 휴대전화로 검색을 해도 좋다고 했다.
- Y는 아니나 다를까 '뭣 해요.' '왜 해요.'한다. 그러면서 손은 휴대전화로 향한다. 검색을 하더니 좋은 글귀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헤밍웨이-'를 추천해 주었더니 길다고 투덜거리더니 몇 번 연습을 하고 쓴다.
- J는 뭘 써야할지 모른단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찾아주었더니 마음에 든단다. H는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더니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정도에 비례한다.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비례한다. -밀란 쿤데르-'를 찾아 보여준다. 오! H 빠르는데 했더니 선생님만 저보고 느리다 한단다. 애들이 웃는다. 몇 번 봤다고 J가 H오빠, '그건 아니듯 오빠 많이 느려'라고 한다.
- C는 휴대전화로 몇 번 터치 하더니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냐 이다.'를 찾아서 연습 중이다.
- K는 망설이기에 드라마 미생의 대사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를 추천해주었더니 '선생님 이걸 정말 부담되는 문장이예요' 한다. 좀 더 생각하더니 '뭘 괜찮은 거 같아요.' 하며 연습을 한다.
- 활동 소감을 물었더니 한 번도 무얼 하겠다는 생각, 꿈(목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단다. 그러나 지금은 꿈을 갖게 되었다는 Y와 H, 아직은 힘들다는 J, 꿈을 찾아보겠다는 C와 K.
-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 같다. Y는 '선생님 집에 갈 때 같이 가요.'한다. C는 '선생님 다음시간에는 뭐해요?' 하며 관심을 보인다.

나. 운영일정

- 2017년 4월 13일 ~ 2017년 10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다. 준비사항

- 도서 : 「꽃들에게 희망을」 등 116권
- 문구 : 자서전용 노트, 미니유화 캔버스, 캘리그라피 펜 등
- 기타 : 영화티켓, 간식(빵, 음료 등)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모든 일에 무관심이 하던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 극복해 가는 과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모습

나. 아쉬운 점

- 개개인의 문제가 달라 관계형성이 힘이 들었고, 처음 보는 또래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 많은 친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비슷한 문제와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묶어 수업하는 것이 아이들이나 진행하는 강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 전문가도 좋겠지만 아이들을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절실하다.

참여 청소년 소감

Y : 쓰는 게 많아 힘들었어요. 책 읽는 것도 싫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H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표(요리사)를 찾게 된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 생겨서 좋아요.

C :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다면 많이 달랠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K : 수업 계속하고 싶어요. 언니, 오빠들이랑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가끔 봐요.

참여 기관 소감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독서 프로그램이 과연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되었지만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단힌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강사
소감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에 저도 놀랍니다. 자서전을 쓸 때만 해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극복해 가며 길을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눈 빛이 편안해진 Y, 수업이 끝나면 뒷정리는 물론이고 무거운 짐은 Y가 옮겨줍니다.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지금은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경찰공무원학원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내년부터 할 거라고 하기에 당장 알아보라고 했더니 ‘예’합니다. 그림의 미학 H는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며 오전에는 검정고시학원을 오후에는 요리학원을 다닙니다. 지금도 자신은 느리지 않다고 우기는 것 빼곤 좋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과 가면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준다며 날을 잡으라고 하네요. 많이 밝아진 C와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워진 K도 저의 재촉에 내년 4월에 있을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힘내고 파이팅!’

사서
소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교를 그만 두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후 비행과 위험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주위의 곱지 못한 시선 가운데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 성장을 돕기 위해 독서 치료를 통한 접근 방식으로 시작하여 그들과 소통을 위해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특히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눈높이를 맞추어 정서적 안정에 노력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원 센터 참여청소년들 중 몇몇은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를 찾는 독서프로그램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늘사랑청소년센터) / 박영미

2010년부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1회)
장소	늘사랑청소년센터
인원	14명(누계: 399명)
내용	나를 찾는 독서프로그램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나를 찾는 독서프로그램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청소년의 문해력 및 창의력 향상 기여
- 참여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나. 추진방침

- 솔직한 감정을 풀어낼 수 있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 실시
- 독서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고, 인성이 뛰어난 강사 위촉

다. 운영 계획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지도강사
1	4월 4일(화)	'나'를 담는 그릇이, 책 만들기 : 직접 스템프 제작, 책포장지 디자인	▶ 「아름다운 책」 ▶ 「만들레는 만들레」	김옥자
2	4월 11일(화)	'있는 그대로의 나' 관찰하기 포트레이트 그리기	▶ 「내 이름은 뽀빠롱스타킹」 ▶ 「포기하는 용기」	
3	4월 18일(화)	캐릭터 파악하기, '객관적인 나' 표현 하기 : 타인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 「피노키오」 ▶ 「시크릿」	
4	5월 2일(화)	같은 이야기 다른 관점	▶ 「위를 봐요」 ▶ 「아홉살 인생」	
5	5월 9일(화)	그림 속 이야기 찾기 : 연상그림 서사 엮기	▶ 「행복한 미술관」	
6	5월 16일(화)	책 속 내 마음에 밀줄 짝, 캘리그래프 쓰기	▶ 「위로의 그림책」 ▶ 「나는 왜 자꾸 짜증이 날까」	
7	5월 23일(화)	재치 넘치는 짧은 시 짓고 손글씨로 시화쓰기	▶ 「시밤」	
8	6월 13일(화)	나만의 향기 레시피	▶ 「너만의 냄새」 ▶ 「가시내」	
9	6월 20일(화)	천연제품 만들기 : 환경주제	▶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10	7월 4일(화)	내 마음 속 두려움 들여다보기, 걱정 인형 만들기	▶ 「블랙독」 ▶ 「불량가족 레시피」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지도강사
11	7월 11일(화)	나의 가치사전	▶ 「아름다운 가치사전 2」 ▶ 「뽀뽀뽀뽀 가도좋아」	김옥자
12	7월 18일(화)	나의 버킷리스트	▶ 「버킷리스트」 ▶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13	8월 1일(화)	북토크 : 내 손에 담고 싶은 아름다움	▶ 「손」	
14	8월 8일(화)	내가 꿈꾸는 세상 보고서	▶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 아 블루머」 ▶ 「말이 세상을 아프게 한다」	
15	8월 22일(화)	핫플레이스 지도	▶ 「세 개의 황금열쇠」	
16	9월 5일(화)	커피, 커피에 대한 나의 취향	▶ 「커피, 치명적인 검은 유혹」	
17	9월 12일(화)	내가 선택한 주인공의 숨은 이야기 따라가기	▶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	
18	9월 19일(화)	북토크 : 해야 하는 일 VS 하고 싶은 일	▶ 「프레드릭」	
19	10월 10일(화)	형식 없는 자유 글쓰기	▶ 「중요한 사실」	
20	10월 17일(화)	나의 책 편집과 디자인	▶ 「나의 플리외르 아저씨」	
21	10월 24일(화)	나의 책 완성하기	▶ 「나만의 특별한 그림책 만들기」	

라. 기대 효과

- 문해력 및 창의력 증진으로 참여청소년들의 학교 복귀 및 사회적응에 도움
- 다양한 간접 경험으로 참여청소년들의 진로방향 설정에 도움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내가 꿈꾸는 세상 보고서
- 1부 (10:00~11:00)
 - ① 타인의 시선에 담긴 나 vs 타인의 시선 밖에 있는 ‘眞我’를 짧은 글로 표현하기
 - ②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 했으면 좋겠다.’
- 2부 (11:00~12:00)
 - ① 나의 스타일로 보는 나
 - ② 내 스타일의 완성

나. 운영일정

- 2017. 8. 8.(화) 10:00~12:00

다. 준비사항

- 도서명 :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 보조자료 : 「말이 세상을 아프게 한다?」
- PPT 활용 가능한 기자재
- 준비물 : 1회차 부터 연계하여 만들어 온 '나의 책'
가위, 풀, 채색도구, 다양한 펜류, 색지, 스타일링 자료, 글쓰기 자료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진아(眞我)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에 담긴 나의 외모적인 면에만 치중하다가 점점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 분노를 표출 하면서 '편견 없는 안전하고 공평'한 세상을 꿈꾼다는 결론까지 도출
- 시작은 강사의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글쓰기로 이어짐.
-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내 스타일의 완성'까지 이어져 스스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과 강사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됨.

나. 아쉬운 점

- 센터의 특성상 참여하는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회차별 연계가 어렵고, 관련 주제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웠음.

참여
청소년
소감

김○경 (참여청소년)

입소해서부터 3개월간 독서치료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이전에 못해봤던 것들을 해봐서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행복했고, 캘리그라피도 해서 좋았습니다. 알게 된 것도 많고 좋은 활동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치료 수업을 더 받고 싶었는데 끝났다니 많이 아쉽고 그동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 잘 활용하며 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독서치료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신○진 (참여청소년)

강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꿈을 이루었다 하셔서 나도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체험도 하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도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참여
기관
소감

김○현 (늘사랑청소년센터 담당자)

이번 2017년 저희 늘사랑청소년센터와 중앙도서관과 협약으로 이루어진 독서치료가 기대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인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독서치료 시간을 즐거워하고 많이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아트 시간은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현직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의 경험담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을 주었습니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을 접하고 체험하게 되어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소감

김옥자 (독서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매 회마다 나를 탐색하는 아이들의 행동은 거침없었고 아이들 사이에 감도는 팽팽한 기류는 나로 하여금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했다. 수업 진행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은 깊어졌다. 아이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고 인정하기로 했다.

규칙에 매여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수업방향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응답해 주었고 천천히 친밀감이 더해졌다. 점점 수업참여도가 높아지고 아이들은 자신에게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요?”를 먼저 물어내던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건 어때요?”라고 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또 맞춤법은 물론이고 문맥도 맞지 않고 한 문단이 열 줄을 넘어가는 글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글을 쓰던 아이들이 빨간 펜으로 받는 일방적인 교정이 아니라 내 질문에 맞춰 심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문단을 바꾸면서 자신의 글이 정돈되어 가는 것을 보며 ‘신기해’를 연신 외치기도 했다. 이렇게 1차, 2차 수정되어 풍성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글을 읽고 감정에 복받쳐 우는 아이도 있었다.

가끔은 수업목표보다 아이들의 기분을 먼저 살피주어야 했던 적도 있다. 그렇게 돌아온 날은 준비과정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허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또 다른 성장의 시간이었다.

사서
소감

박영미 (중앙도서관 사서)

센터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사업이라며 꼭 참여하고 싶다는 늘사랑청소년센터와 함께 한 7개월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주 작은 체험과 관심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격려가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슴 뿌듯했습니다.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

학나래도서관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별마루) / 김정화

인천남구립도서관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서소외계층 지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도서관에서 실행하여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간	2017년 6월 ~ 10월 (5개월, 총 20회)
장소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별마루
인원	7명(누계: 70 명)
내용	독서상담심리 프로그램 운영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추진목적(배경) 도서관과 동일 관내에 위치한 중장기 남자 쉼터 청소년들의 책에 대한 관심 유인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나. 추진방침

- 책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북 PPT, 캐리커처 그리기, 철학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다. 운영 계획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1~4	6월 3일~6월 24일(토) 11:00~13:00	책으로 힐링하기	「어린왕자」 「연금술사」 「꽃들에게 희망을」
5	7월 1일(토) 13:00~16:00	문화해설사와 떠나는 나들이	「스토리텔링 인천」
6~8	7월 8일~7월 22일(토) 11:00~13:00	나도 시를 쓴다	「서울시 1, 2」 「시 읽는 밤, 시밤」
9~16	8월 12일~9월 30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사라지고 싶은 날」 「꾸뻔씨의 행복여행」 「레오의 특별한 꿈」 「고슴도치의 소원」외
17	10월 7일(토) 15:00~18:00	영화보고 생각나누기	영화관람
18~19	10월 14일~10월 21일(토) 11:00~13:00	캐리커처에 담는 나의 꿈	캐리커처 전문가가 그려주는 나의 꿈
20	10월 28일(토) 14:00~17:00	꿈 선언문 읽기	내 꿈을 설계하고 주변에 선언하기

라. 기대 효과

- 참가자들이 책에 대한 관심과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변화를 보임
- 쉼터 청소년들의 층위가 다양한 편인데도 자체 SNS로 소통하고 있음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자유롭게 서술)

- 각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은 당일의 기분과 몸의 컨디션, 지난 1주간의 생활 나눔을 하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열고, 당일 또는 1주 전에 배포한 책을 함께 읽고 발문을 통한 상호작용 작업, 스케치북 등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때는 당일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과 프로그램 시작할 때의 기분 및 몸의 컨디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발문을 통한 상호작용 작업 및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작업을 할 때는 참여자의 참가 의사를 존중하여, 발언을 원하지 않거나 작업을 원하지 않을 때는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각 회차마다 활용한 도서는 독서를 어려워하는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미리 읽어 오지 않아도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글이 수록된 단편집, 삽화가 포함되어 있는 소설집 등을 선정하였다.
- 각 회차마다 미리 선정하였던 도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참여자들의 흥미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선정 도서 이외에도 그림책이나 시를 활용하여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글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스케치북 및 채색도구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많이 시도하였으며, 작업한 결과물은 다음 회차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나. 운영일정(시간표)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강사	활용도서
1	6월 3일(토) 11:00~13:00	책으로 힐링하기(명작의 일러스트를 PPT로 보며 생각 나누기)	정현주	「꽃들에게 희망을」
2	6월 10일(토) 11:00~13:00			「어린왕자」
3	6월 17일(토) 11:00~13:00			「연금술사」
4	6월 24일(토) 11:00~13:00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5	7월 1일(토) 11:00~13:00			
6	7월 8일(토) 11:00~13:00	나도 시를 쓴다 1 디카시 감상	정민나	「서울시 1」 「시 읽는 밤」
7	7월 15일(토) 11:00~13:00	나도 시를 쓴다 2 실제 일상시 써 보기		「서울시 2」 「시 읽는 밤」
8	7월 22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 마음 열기	정현주	「사라지고 싶은 날」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9	8월 5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 나를 만나기		「고슴도치의 소원」 「중요한 사실」
10	8월 12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 나를 표현		「말하자면 좋은 사람」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강사	활용도서
11	8월 19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감정 다루기	정현주	「어느날 고양이가 왔다」 「돌멩이도 춤을 추어요」 「꾸뻔씨의행복여행」
12	8월 26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 나를 사랑하기		
13	9월 2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나의 꿈 이야기1		「레오의 특별한 꿈」
14	9월 2일(토) 14:00~17:00	영화 감상(남주안 CGV)		
15	9월 9일(토) 11:00~13:00	독서심리로 '나' 돌아보기 -나의 꿈 이야기2	정현주	「마음의 집」 「내가 책이라면」
16	9월 23일(토) 11:00~13:00	철학자와의 대화 1	허경	
17	9월 30일(토) 11:00~13:00	철학자와의 대화 2		
18	9월 30일(토) 11:00~13:00	캐리커처에 담은 나의 꿈 1	박소연	
19	10월 14일(토) 11:00~13:00	캐리커처에 담은 나의 꿈		
20	10월 21일(토) 11:00~13:00	꿈 선언문 읽기 담당자 간담회 및 평가회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총 20회 프로그램 기획·운영 / 총인원 약 70명 참여

나. 아쉬운 점

- 남자중장기쉽터여서 교육과정 중에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집으로 복귀하는 등 교육 대상 인원에 변동이 있음.
- 수업이 토요일이어서 쉽터사업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수강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 간 긴밀한 소통이 쉽지 않았음.

참여
청소년
소감

그림책을 통해 내 꿈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림책에 관심이 생겼고, 캐리커처 그리기도 해보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참여
기관
소감

책을 가까이 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와 관심에 맞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접할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강사
소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자 스스로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는 의지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도서관과 쉼터 등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독서관련 프로그램 제공과 독서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서
소감

스무 번의 토요일 오전을 쉼터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에 처음에는 다소 거리감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진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적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책에 대한 능동적 관심을 보인 몇몇 아이들의 변화가 무척 특별하고 고무적이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김유정 문학기행 <봄봄>, <동백꽃>의 주인공이 되어보다

...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신명보육원) / 이현정

부평도서관 독서진흥팀에서 독서동아리 지원 및 어린이·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독서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프로그램을 여러 번 진행해 온 나에게도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한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8회)
장소 신명보육원
인원 13명(누계: 290명)
내용 남이섬 스토리투어,
김유정 생가 및 문학촌 탐방등 운영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08 ...독서문화 프로그램 |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신명보육원)

김유정 문학기행 <봄봄>, <동백꽃>의 주인공이 되어보다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작품의 배경과 무대를 간접 경험해 봄으로써 작품이 주는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제공
- 독서의 양적인 강조나 결과 중심의 독서교육에서 벗어나 책 읽기 활동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꾸준한 독서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추진방침

- 참여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작가의 생가와 문학 작품 속 현장 체험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책과 가까워지고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춘천 남이섬 및 김유정 문학촌 일대 문학기행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공모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독서프로그램으로, 각 기관에서는 학생 관리, 예산 및 차량지원 등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협조
- 신명보육원 : 참여 학생 모집 및 관리, 차량지원
- 부평도서관 : 참여 학생 및 담당자 중식, 간식제공
- 강사 : 사전 프로그램 및 문학기행 프로그램 진행

다. 운영 계획

- 일시 : 2017년 7월 22일(토) 08:00~18:00
- 장소 : 춘천 남이섬, 김유정 문학관 일대
- 대상 : 신명보육원 중학생 및 강사, 담당자 등 13명
- 장소 : 남이섬 스토리투어, 김유정 생가 및 문학촌 탐방

라. 기대 효과

-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작품의 배경과 무대를 간접 경험해 봄으로써 작품이 주는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제공

- 유니세프 홍보 기념관을 둘러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활동에 대한 공감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됨.
- 보육원에서 벗어나 '책', '자연', '비', '여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주는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
-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느끼는 재미와 감동으로 자기주도적 독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 기반 마련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남이섬 스토리투어 - 세계3대 그림책상, BIB 남이섬 특별展
견학BIB(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는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서 아동청소년 도서의 원화를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전시하는 행사이다. 다양한 체험 아이템과 함께 구성되어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한국인 수상자 존을 따로 마련되어 있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그림책 수준을 보면서 아이들이 뿌듯해 했다.
- unicef 홍보관 견학
190개의 국가 및 영토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unicef 기관 홍보관을 둘러봤다. 여학생들은 유니세프 아우인형 만들기애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김유정 문학관 견학
김유정선생의 생애와 작품설명이 있는 기념전시관과 김유정 생가를 둘러본 후 <봄봄>에 나오는 점순이와 팔봉이 그리고 데릴사위를 기대하며 3년 넘게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화자가 동상앞에서 주인공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아이들 모두 주인공 '나'의 억울한 표정에 모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나. 운영일정

진행시간	내용	비고
08:00	▶ 신명보육원 집결 / 인원점검 / 출발	● 차량지원 : 신명보육원
08:00 ~ 10:00	▶ 남이섬 선착장 도착	
10:00 ~ 12:00	▶ 남이섬 스토리투어 : 전문해설사와 함께 남이섬 곳곳을 거닐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투어 프로그램	
12:00 ~ 13:30	▶ 중식장소 이동 및 식사	
13:30 ~ 16:00	▶ 김유정 생가 및 문학촌 탐방 ▶ 시레마을 이야기길 탐방 ▶ 김유정 문학촌 주말상설공연 관람(금병산 자락 풍류여행, 오후2시) ▶ 기념사진 촬영하기	
16:00 ~ 18:00	▶ 신명보육원 도착	

다. 준비사항

- 삶의 여행으로 초대 - 문학기행 연계 차시 운영
 - 활용도서 「동백꽃」 읽고 감상나누기
 - 김유정 작가와 실레마을 이야기 나누기
- 김유정문학관 일대 청소년 견학 추천기관, 장소 조사
- 문학기행과 연계한 코스 및 일정 기획
- 견학 장소 및 식당 예약, 간식 구입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책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인식의 변화

참여한 친구들끼리 책을 읽어주거나 돌아가면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책이 지루한 것만은 아니며, 꼭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책에 대한 토의와 문학기행을 통한 독서체험활동을 하면서 독서에 대한 재미와 긍정적인 인식으로 자기주도적 독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독서체험활동을 통한 새로운 삶의 경험

문학작품의 배경을 찾아보는 문학기행을 통해 아이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물론, 문학기행 뉴스 만들기 위한 영상 활동 수업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문학기행의 독서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함.

- 공공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이용의 생활화 기반 마련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함.

나. 아쉬운 점

- 참여 학생들의 독서능력 및 성향파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시간 필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독서능력 및 성향에 대한 파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책이라는 매개체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의 방향을 치료에 둘 것인지, 일상적인 독서에 둘 것인지 아이들의 독서능력과 성향파악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초반에 빨리 친해 질 수 있는 문학기행, 문화공연관람 등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필요함.

- 독서활동 후 책과 연계한 활동적인 체험프로그램의 연계

참여 학생들이 김유정문학관 탐방, 멘토와의 만남, 별자리 탐험 등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과 연계한 사전, 사후 체험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주제를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진로·인물탐색 후 체험기회 제공, 다양한 공연문화체험 등)이나 '길 위의 인문학' 형태의 프로그램 도입 운영 제안)

참여
청소년
소감

이○현

이해인 수녀님의 책 <모든 순간마다 꽃으로 필거예요>를 읽는 도중에 내 생일을 찾아보았는데 제일 마음에 닿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천사>를 읽고 '선생님의 우주가 나를 지켜 준대'라는 말을 들으며 나에게도 천사가 있을거라고 어린아이처럼 한껏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영상활동 '영화만들기'도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김유정문학관에 갔던 경험,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던 독서캠프 독서프로그램 모두가 좋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오면 꼭 하고 싶다

신○민

<인생의 목적어> 책이 좋았다. 단어 한 개 한 개마다 와 닿는 말들이 너무 좋았고 활동지도 쓰고 자기가 맘에 드는 문장을 고르는 게 좋았다.

<할아버지의 천사> 책도 좋았다. 나도 불행이 올 뻔 하다가 운이 좋아서 안 다 치거나 기분 좋아지는 날이 있었는데 그냥 '운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고 내 곁에서도 천사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안전하게 지켜준 것 같아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해인 수녀님의 책 <모든 순간마다 꽃으로 필거예요>는 밥을 먹거나 식탁에 앉을 때 마다 보는데 책 속에 담겨 있는 문장들이 너무 좋다. 내 생일에 대한 글도 좋다.

문학기행 가는 날은 비가 와서 남이섬 투어는 조금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이 있어 좋았다. 문학 기행처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 내 얼굴이 직업 나오는 영상물을 만드는 활동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이라 신기하고 즐거웠다.

참여
기관
소감

시설에서의 집단생활과 부모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원 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의 심리이해를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부평도서관 공모, 지원한 독후활동, 영상제작, 문학기행, 독서캠프, 멘토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는데 몇몇 아동들은 중간에 다른 일정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영상제작, 별자리 탐험 독서캠프, 문학 기행 등 외부활동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동들을 보며 지원해준 기관과 매회기 아동들에게 최고를 선물하기 위해 노력한 강사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강사
소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보다 앞선 세대로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고 도서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7개월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고 그 고민이 결국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날마다 나를 시험했다. 때론 그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하면서 한발자국씩 아니 손톱만큼씩 서로를 인정하고 가까워졌다. 욕설이 난무하던 수업시간도 조금씩 달라졌다. 개인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심드렁하고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로만 가득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듣게 되면서 수업의 꼴을 갖추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돈된 수업 분위기와 아이들의 참여가 좋았던 시간만이 수업이라고 생각한 것도 나의 편견이었다. 산만하고 시끄럽고, 하기 싫어서 짜증을 내며 한마디로 지지고 볶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시간도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 들여다보려고 애썼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는 아이들이 가진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살짝 엿들으니 중3 친구들은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 깊이 있는 고민이라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먹먹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을 해야 하는 이곳의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가 남달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만 할 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어 안타까웠다.

책을 더 싫어하게 만들지는 말 것,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용기를 갖게 하는 것.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였다. 그리고 책의 힘을 믿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잠시만이라도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짧은 시간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아이들이 책에 가 닿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수업에 활용했던 “할아버지의 천사(유타 바우어)”는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이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의 하나였다. 거기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어떻게 알았던 걸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사서
소감

이제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가오는 아이들과 수업을 마쳤다. 나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내년에도 또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래도 하겠다고 답해줘서 고맙았다.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다보니까 재미있는 날도 있더라는 아이들의 고백도 무척 고맙았다. 생각해보니 누구보다 아픈 시간들을 잘 견디며 하루하루를 억어가는 아이들이 대견했다. 나도 함께 해서 행복했다고 전한다.

‘이 아이들이 또 나를 성장하게 해주었구나!’

아이들이 부디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도 잘 이겨내면 행복의 기쁨을 맞이한다는 삶의 지혜를 만나기를,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살아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정에서 가출을 하고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가정폭력과 방임 등 돌아갈 가정이 없는 해체된 가족, 부모의 부재로 본받고 따라야 할 어른의 롤 모델 없이 혼자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돈과 심리적 불안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 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러나 어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친구들이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매주 인사를 하고 아이들 뒤에서 지켜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간식이 생기면 슬쩍 건네주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과격하고 거친 아이들이었지만, 청소년기의 아이들 마음속에는 순수함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친구들과 또 한 번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다.

책 속에서 나를 찾다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대전시단기청소년쉼터) / 홍진영

2017년 4월부터 한밭도서관에서 진행된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에 인사이동에 의한 자리변동으로 다소 늦게 7월부터 참여 하였다. 쉼터에서 진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이 생소하기도 하고 쉼터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행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부담스러웠지만 꾸준히 진행하신 외부 독서프로그램 강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독서치료를 진행함.

●
●
●

기간	2017년 4월~11월 (8개월, 총 28회)
장소	대전 중장기 청소년 여자 쉼터(대전 내동)
인원	10명(누계: 170명/1회 평균 6명)
내용	대전 소재 중장기 청소년 여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책 읽기 및 독서 심리 코칭을 통하여 쉼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및 진로고민, 미래 설계 등에 도움을 제공

책 속에서 나를 찾다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 목적

-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와 가정 및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다양한 불안 상황(가정 폭귀, 가정폭력 재판 중, 파양 등)에 놓여있음.
-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아정체감 형성기로서 자아탐구를 기반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지만 학업에 전념할 수 없거나 중단한 경우가 많고, 가족의 보살핌과 지도도 받지 못하는 형편임.
- 이러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책을 통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적절한 독서프로그램 추진하고자 함.

나. 추진방침

독서의 대표적 특성인 인지적인 면이 강조되면 프로그램에 흥미가 떨어지고, 나아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치료 프로그램 외에 도서관 견학, 문화체험(영화관람), 멘토초정특강 등을 적절히 구성하여 효과적인 독서치료가 되도록 함.

TIP

다. 운영 계획

- 독서프로그램 20회차의 단계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각 회기 별 목표에 맞춰서 세부 일정 진행
 - 초기 단계 : 말하기를 통한 표현에서 출발하여, 활동지를 채우거나 모방시 쓰기, 그림일기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
 - 중기 이후 : 초기 단계 활동을 바탕으로 연극체험, 그림책 자서전 쓰기 방식 등으로 글쓰기도 진행

라. 기대 효과

- 독서심리코칭을 통해 쉼터청소년들이 건문을 확장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 쉼터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치유하며 바람직한 진로와 방향 설정을 통해 미래 설계를 하는 계기 마련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인지적 독서치료

나의 경험 이야기하기, 주인공 위로 및 격려하기, 방법 찾기, 서로 조언하기, 칭찬 댓글 쓰기, 자신과 서로의 특별한 점 찾기 등

● 정서적 독서치료

기분 날씨 쓰기, 서로 마음 처방전 써주기, 고민과 아픔을 여러 방법으로 표출(데칼코마니, 나무사람인형 꾸미기 등)

● 행동적 독서치료

초청작가의 작품 모방시 쓰고 피드백 받기, 나를 응원하는 예약 문자 보내기, 레모네이드 직접 만들어주기로 대인 관계 실습, 여러 주제의 그림책 자서전쓰기를 통한 통찰하기 등

나. 운영 일정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장소	비고
1	4월 8일(토) 10:00~12:00	서로 알기 및 책과 활동 이해하기 ▶ 책 캐릭터 명함 주고받기 ▶ 그림책 「책이 뭐야?」, 「아름다운 책」 보며 뒷이야기 상상하기	▶ 「책이 뭐야?」 ▶ 「아름다운 책」 ▶ 「내가 쓰고 내가 그린 책」 ▶ 「다시, 책은 도끼다」 ▶ 「책 먹는 여우」	명창순 (외부강사)	중장기 청소년 여자침터	강사 1회
2	4월 15일(토) 10:00~12:00	나, 너, 우리 알기 ▶ 청소년 시 「난 빨강」 감상하고 모방시 짓기, 발표하기 ▶ 참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색깔 찾아주기	▶ 「난 빨강」 ▶ 「파울볼은 없다」 ▶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 「동물원 야간개장」 ▶ 「나무는 참 좋다」			강사 2회
3	4월 22일(토) 10:00~12:00	나를 바라보기 ▶ 그림책 「나무는 참 좋다」, 단편 소설 「가능성의 나무」(베르나르 베르베르) 읽고 토의하기 ▶ 책에서 나의 과거·현재·미래 나무 찾고, 가능성의 열매 그리기	▶ 「가능성의 나무」 ▶ 「세계도시 지도책」 ▶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 ▶ 「책가방을 메고 오늘도 관찮은 척」			강사 3회
4	4월 29일(토) 10:00~12:00	나를 응원하기 ▶ 청소년 시 「성적에 관한 나의 이야기」, 「나에게 보낸 문자」 등 감상하고 토의하기 ▶ 프로그램 종결일에 맞춰 나에게 응원 문자보내기 ▶ 학습온도재기, 삶의키재기 활동	▶ 「내일은 꿀을게」 ▶ 「나는 지금 꽃이다」			강사 4회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장소	비고
5	5월 13일(토) 10:00~12:00	나의 강점과 약점 찾기 ▶ 심리학교양서「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일부), 그림책「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나」읽고 토의하기 ▶ 자존감 팝업 카드 만들기 ▶ 나의 자존감척도 검사하기	▶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나」 ▶ 「자존감 수업」 ▶ 「미움받을 용기」 ▶ 「스마일 워크」	명창순 (외부강사)	중장기 청소년 여자쉼터	강사 5회
6	5월 20일(토) 10:00~12:00	나의 과거 모습 돌아보기 ▶ 「꽃들에게 희망을」(도입부)읽고 토의하기 ▶ 데칼코마니로 나의 나비 꾸미기 ▶ 어린시절 꿈 떠올리기	▶ 「꽃들에게 희망을」 ▶ 「모모」 ▶ 「마지막 거인」 ▶ 「행복한 청소부」 ▶ 「행복한 진로학교」			강사 6회
7	5월 27일(토) 10:00~12:00	나의 현재 모습 점검하기 ▶ 「꽃들에게 희망을」(중반부)읽고 토의하기 ▶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노래가 사바꿔 짓기 ▶ 거꾸로 가는 시계: 시간을 되돌려 하고 싶은 일 글쓰기 ▶ 다양한 직업의 세계 탐구하기,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구분하기	▶ 「위저드 베이커리」 ▶ 「시간을 파는 상점」 ▶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침대를 위한 직업카드」			강사 7회
8	6월 3일(토) 10:00~12:00	도서관에서 살아남기 ▶ 도서관 견학 및 체험활동	▶ 「마당을 나온 암탉」 ▶ 「자기 앞의 생」 ▶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	이현경 (내부강사)	한발 도서관	견학 1회
9	6월 10일(토) 10:00~12:00	나의 미래 모습 상상하기 ▶ 「꽃들에게 희망을」(후반부)읽고 토의하기 ▶ 특별한 도전자에게 가상인터뷰하기 ▶ 미래 나의 직업 찾고, 노력할 점 찾기	▶ 「어간 남자」 ▶ 「진로를 정하지 못한 나, 비정상인가요?」 ▶ 「친구를 사귀는 특별한 방법」 ▶ 「내 짧은 연애이야기」		중장기 청소년 여자쉼터	강사 8회
10	6월 17일(토) 10:00~12:00	친구에게 다가가기 ▶ 청소년시 「내 짧은 연애 이야기」, 그림책 「친구를 사귀는 특별한 방법」읽고 토의하기 ▶ 레모네이드 만들어 선물하고 답장받기	▶ 「징코프, 넌 루저가 아니야」 ▶ 「78층, 나무집」			강사 9회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장소	비고
11	6월 24일(토) 10:00~12:00	좋은 친구 되기 ▶ 청소년 단편소설「천국의 아이들」(이금이), 그림책「친구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 읽고 토의하기 ▶ 방황하는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 「청춘기담」 ▶ 「친구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 ▶ 「왕따 탈출 대작전」 ▶ 「학교 폭력 왕따 그만해」 ▶ 「열다섯, 우리들의 꿈」	명창순 (외부강사)	중장기 청소년 여자쉼터	강사 10회
12	7월 1일(토) 10:00~12:00	가족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기 ▶ 그림책&애니메이션「아버지와 딸」, 보고 토의하기 ▶ 그림책 자서전:「나와 아버지」 주제로 글쓰기	▶ 「아버지와 딸」 ▶ 「울어도 괜찮아」 ▶ 「내가 친구를 괴롭혔다고?」 ▶ 「어느날, 고양이가 왔다」			강사 11회
13	7월 8일(토) 10:00~12:00	가족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기 ▶ 청소년 시「전쟁과 평화」, 「내가 죽어라」, 그림책「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읽고 토의하기 ▶ 그림책 자서전:「나와 어머니」 주제로 글쓰기	▶ 「똥통에 살으리랴다」 ▶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 「내일은 꿀을게」			강사 12회
14	7월 15일(토) 10:00~12:00	감정훈련-위로와 공감 ▶ 그림책「마음이 아플까봐」, 「블랙 독」, 「빨간 나무」, 소설 「빨간머리 앤」(발체) 읽고 토의하기 ▶ 내 마음의 상처 목록&약점 목록 적기 ▶ 서로에게 마음 상처 처방전 써주기	▶ 「마음이 아플까봐」 ▶ 「블랙 독」 ▶ 「빨간 나무」 ▶ 「빨간머리 앤 이야기 1~3세트」			강사 13회
15	7월 22일(토) 10:00~12:00	나의 성장-「나」 돌아보기 ▶ 시 「나만의 5대 뉴스」, 교양서 「중학생 인생수업」(일부) 읽고 토의하기 ▶ 나의 위치찾기 활동 ▶ 「내 인생의 5대 뉴스」모방시 쓰기	▶ 「나만의 5대 뉴스」 ▶ 「중학생 인생수업」 ▶ 「히말리아 도서관」			강사 14회
16	7월 29일(토) 10:00~12:00	감정훈련-복수와 용서 ▶ 그림책「아툽」, 신문기사 읽고 토의하기 ▶ 그림책 자서전:주인공에게 그림 편지쓰기	▶ 「팽권은 너무해」 ▶ 「나는 할머니와 산다」 ▶ 「내인생의 자서전 쓰는 법」			강사 15회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장소	비고
17	8월 5일(토) 10:00~12:00	감정훈련-치유와 지지 ▶ 청소년 시『내 마음에 선인장이 자란다』, 그림책『가시 소년』읽고 토의하기 ▶ 그림책 자서전: 지금의 나를 이해받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쓰기	▶ 『가시소년』 ▶ 『나무를 심은 사람』 ▶ 『학교 밖으로 떠나라』 ▶ 『편의점 인간』	명창순 (외부강사)	중장기 청소년 여자쉼터	강사 16회
18	8월 12일(토) 10:00~12:00	문화체험 ▶ 영화 관람		이현경 (내부강사)	인근 영화관	문화 체험 1회
19	8월 19일(토) 10:00~12:00	자기성장 예언하기 ▶ 책『중학생 인생수업』(일부), 그림책『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읽고 토의하기 ▶ 자기성장의 집 만들기 ▶ 나무사람 꾸미고 시쓰기	▶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아뜰』	명창순 (외부강사)	중장기 청소년 여자쉼터	강사 17회
20	8월 26일(토) 10:00~12:00	자기성장 도전하기 ▶ 청소년시『내 마음에 선인장이 자란다』, 그림책『지구별에 온 나』, 소설『자기 앞의 생』(일부) 읽고 토의하기 ▶ 그림책 자서전:『지구별에 온 나』글쓰기	▶ 『선인장 호텔』 ▶ 『지구별에 온 손님』			강사 18회
21	9월 2일(토) 10:00~12:00	삶의 가치관과 목표 세우기 ▶ 교양서『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다:묘비명. 비문』읽고 토의하기 ▶ 그림책 자서전:내 삶의 지표가 될 좌우명으로 비문 만들기	▶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다 :묘비명, 비문』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꼬마 니콜라』			강사 19회
22	9월 9일(토) 10:00~12:00	작가와 함께, 참여하는 북콘서트 ▶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 『열흘간의 낯선 바람』	함순례 (외부강사)	중장기 청소년 여자쉼터	북콘 1회
23	9월 23일(토) 10:00~12:00	미래 설계하기 ▶ 수필집『라면을 끓이며』(김훈) 읽고 토의하기 ▶ 십대시절의 버킷리스트, 살아가는 동안의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 전체 프로그램 소감 및 개인별 활동자료집, 그림책 자서전 발표하기	▶ 『라면을 끓이며』 ▶ 『어린왕자』 ▶ 『갈매기의 꿈』	명창순 (외부강사)		강사 20회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강사	장소	비고
24	9월 30일(토) 10:00~12:00	멘토초청강연회 이장근 시인	▶ 「파울볼은 없다」 ▶ 「나는 지금 꽃이다」	이장근 (외부강사)	중장기 청소년 여자심터	초청 강연 1회
25	10월 14일(토) 10:00~12:00	연극체험 ▶ 인간과 삶의 이해 ▶ 희랍비극을 통해 예술의 역사 와 인간의 비극을 통한 카타 르시스를 이해한다.	▶ 「오이디프스왕(소포클 래스)」	유나영 (외부강사)		연극 1회
26	10월 21일(토) 10:00~12:00	연극체험 ▶ 나를 알고 남을 알기 ▶ 다양한 캐릭터를 알아보고 상 황희극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알아본다.	▶ 「따르뫼프(몰리에르)」			연극 2회
27	10월 28일(토) 10:00~12:00	연극체험 ▶ 현실 안에 나를 발견하기 ▶ 현재 청소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다룬 작품을 통해 나를 발견 해본다.	▶ 「청춘예찬 (박근형)」			연극 3회
28	11월 4일(토) 10:00~12:00	연극체험 ▶ 나를 인생을 그려보기 ▶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삶 을 만들어본다.	▶ 「굿닥터(닐 사이먼)」			연극 4회

다. 준비사항

- 활용도서 : 그림책, 청소년 시, 소설, 동화, 영상물, 진로 정보책 등
- 문구 : 스케치북, 색연필 등
- 간식 : 초코렛, 사탕, 젤리, 과자 등
- 선물 : 개인별로 낱말 처방 카드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리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함께 생활하는 중장기심터 청소년들 간에 이해와 상호작용방식이 향상
- 다양한 책과 독서활동 경험을 통한 흥미 유발
- 심리·정서적 문제와 감정을 표출을 통하여 자기이해와 통찰 경험
- 프로그램 진행시 활용한 청소년시집의 작가를 작가초청강연회의 높은 만족도

나.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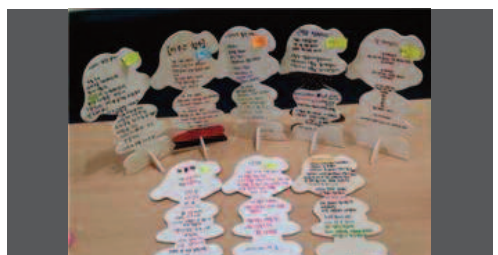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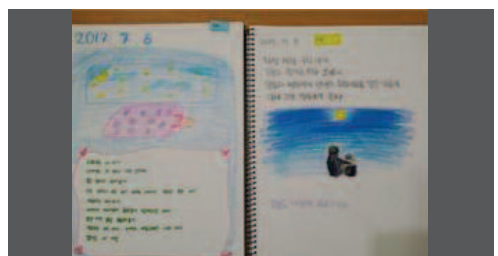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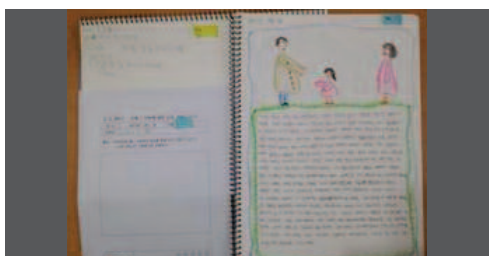
- 참가 청소년의 개별 일정 등으로 인한 낮은 출석율

강사 소감

처음 시작할 때,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청소년들이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중장기쉼터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립과 독립을 선택하고 보호시설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여타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른 특성과 강점을 발견하여 반영하였고, 이 점이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사서 소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접근방법을 몰라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독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차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상처 등이 치유 되는 과정을 보며 책을 통한 독서치료의 중요성을 느꼈다.



쉼터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위한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

...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사회복지사 김유민

...

기간 2017년 4월~10월 (7개월, 총 20회)

장소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인원 13명(누계: 109명)

내용 총 20회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자기효능감 증진'이 목표인데,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작으나마 성취감을 통해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어서 2차적으로는 '학습습관 형성 및 진로계획 확립'을 돕고자 한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쉼터 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정 학습방법을 익히고, 나아가 적정 진로를 탐색하여 계획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쉼터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위한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청소년기는 심리적·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따라서 혼란감으로 인해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등 생각이나 심정과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는 불일치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가정이나 학교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가정을 떠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행히 이런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며 다시 자신의 환경으로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쉼터 등의 기관들이 있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더욱 큰 보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여러 측면에서의 혼란감을 갖고 있는 쉼터 내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도와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방침

-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하거나 위기에 처한 여자 청소년으로 대부분 부모의 학대, 알콜 중독, 양육 거부 등의 이유로 쉼터에 입소하여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입소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성장은 치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물론 단기쉼터는 입소 청소년들의 변동으로 인해 장기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불안정한 요인도 있지만 상, 하반기 10회기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회기 프로그램과 동시에 1박 2일 독서캠프를 진행하여 그동안 책에 관심도 없고, 친근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게 책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 운영 계획

-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작으나마 성취감을 통해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어서 2차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학습 습관 형성 및 진로계획 확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적정 학습방법을 익히고, 나아가 적정 진로를 탐색하여 계획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총 2차에 걸친 프로그램은 주 1회 평일 저녁에 각 2시간 씩, 프로그램마다 10회씩 총 20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 외에는 쉼터 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라. 기대 효과

- 본 프로그램은 쉼터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독서치료적 접근을 주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독서치료는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동일시를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이후 발문을 통해 카타르시스와 통찰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학습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도 하다. 나아가 작문, 미술, 연극, 놀이 등의 여러 활동들은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마음 열기를 시작으로 친밀감 형성, 자기 노출을 통한 공감대 형성, 감정 짚어보기, 관계를 통한 자아개념 인식, 대인 관계 능력 기르기, 성취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자긍심 강화, 미래 설계하기, 마음의 정리 및 종결의 순서로 운영이 되었다.
- 또한 ‘학습 습관 형성 및 진로계획 확립’ 프로그램은 학습 습관 점검 및 필요성 인식, 학습 준비도 및 방해 요인 점검하기, 경청 및 이해 기술 향상, 기억 및 정리 능력 향상, 효율적인 시간 관리 기술 익히기, 흥미와 적성 탐색, 직업 세계 탐색, 진로 의사 결정, 진로계획 확립, 긍정적인 미래 설계 및 종결의 순서로 운영이 되었다.
- 두 프로그램 모두 선정된 독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학생들이 참여 전에 쉼터 내에서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시간에는 중요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며 발문을 통해 상호작용을 실시했다. 이어서 관련 활동을 통해 각 시간의 세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 운영일정

-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회차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 우리들의 마음 열기	▶ <도서 :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 오리엔테이션, 서약서 작성 및 다짐, 자기소개 나누기 '나'
2	▶ 친밀감 형성	▶ <노래 : 「내일을 묻는다」> ▶ <도서 : 「알버트」>	● 인생 그래프 그리기, 알고 싶은 나
3	▶ 자기 노출을 통한 공감대 형성	▶ <도서 : 「우리 소녀」> ▶ <다큐 : 우리들의 뜨거운 고백>	● 고민 노출과 피드백 주고받기, 내 고민 사가라!
4	▶ 감정 짚어보기	▶ <애니 :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어> ▶ <동시 : 가끔>	● 오늘 기분이 어때요, 모방 시 쓰기
5	▶ 관계를 통한 자아 개념 인식	▶ <도서 : 「두 사람」>	● 대인관계 지도 그리기,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6	▶ 대인 관계 능력 기르기	▶ <도서 : 「학과 해오라기」> ▶ <애니 : 아따맘마>	● 바람직한 경청 태도·공감적 표현·나 전달법 익히기 및 실습

회차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7	▶ 성취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 <도서 : 「우체부 슈발」>	● 시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 경험 쌓기
8	▶ 자긍심 강화	▶ <도서 : 「포인트 스토리」>	● My Point Story 쓰기
9	▶ 미래 설계하기	▶ <광고 :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 ▶ <노래 : 그때 그 아이들은>	● 상상 극장 펼치기 - 역할극으로 표현한 내 직업
10	▶ 마음의 정리, 종결	▶ <시 : 겨울나무>	● 나만의 꽃 피우기, 참여 소감 나누기

● 학습습관 형성 및 진로계획 확립 프로그램

회차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 오리엔테이션, 학습습관 점검 및 필요성 인식	▶ <도서 :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 프로그램 소개, 집단 서약서 작성, 자기 소개, 두뇌기능 진단, 학습 습관 검사
2	▶ 학습 준비도 및 방해 요인 점검하기	▶ <도서 : 「에너지 버스」>	● 학습 스타일 검사, 내 에너지 뱀파이어 찾아내기
3	▶ 경청 및 이해 기술 향상	▶ <도서 : 「내 마음이 들리니?」> ▶ <도서 :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 말 이어가기 놀이, 다양성 속의 핵심 찾기
4	▶ 기억 및 정리 능력 향상	▶ <도서 : 「기적의 기억법」>	● 기억 기술 익히기
5	▶ 효율적인 시간 관리 기술 익히기	▶ <시 : 시간의 중요성>	● 과제 계획표 만들기, ● 시간 계획표 만들기
6	▶ 흥미와 적성 탐색	▶ <도서 : 「파란 막대 파란 상자」>	● 내 흥미와 적성 탐색하기(성격유형간이 검사, 다중지능검사)
7	▶ 직업세계 탐색	▶ <도서 : 「미래생활사전」>	● 미래의 유망 직업 탐색
8	▶ 진로의사 결정	▶ <도서 : 「갈매기 조나단」>	● 나의 꿈 목록
9	▶ 진로계획 확립	▶ <영상 : 당신의 전성기>	● 미래 일기 쓰기
10	▶ 긍정적인 미래 설계, 종결	▶ <도서 : 「빨간 나무」>	● 희망 나무 만들기, 참여 소감 나누기

다. 준비사항

● 활용 도서(자료) 목록

회차	구분	제목	저자	발행처
자기효능감 증진				
1	도서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셸 실버스타인	시공주니어
2	노래	내일을 묻는다	제이 래빗	(주)디지털레코드
	도서	알버트	도나 조 나폴리	작은책방
3	도서	유리 소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베틀북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뜨거운 고백	지식채널 ⑨	EBS-TV
4	애니메이션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어	류무선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	가끔	신형건	푸른책들
5	도서	두 사람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사계절
6	도서	학과 해오라기	존 요먼	마루벌
	애니메이션	아따맘마	야스미 데쓰오	TV 아사히
7	도서	우체부 슈발	오카야 코지	진선출판사
8	도서	포인트 스토리	강우현	여성신문사
9	광고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	일본 리쿠르트	일본 리쿠르트
	노래	그때 그 아이들은	악동뮤지션	YG엔터테인먼트
10	시	겨울나무	안오일	푸른책들
학습습관 형성 및 진로계획 확립				
1	도서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로저 뒤바쟁	시공주니어
2	도서	에너지 버스	존 고든	샘앤파커스
3	도서	내 마음이 들리니?	일랑 브렌만	베틀북
	도서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이노우에 마사지	문학동네
4	도서	기적의 기억법	크리스티아네 슈탱거	글로세움
5	시	시간의 중요성	김상희	휴머니스트
6	도서	파란 막대 파란 상자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사계절
7	도서	미래생활사전	페이스 팝콘	을유문화사
8	도서	갈매기 조나단	리처드 바크	은행나무
9	다큐멘터리	당신의 전성기	지식채널 ⑨	EBS-TV
10	도서	빨간 나무	순 텐	풀빛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입소 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본 기관에서는 매일 밤 입소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 때 시쓰기 활동이나 감정카드, 만다라 등의 활동을 하는데 독서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활동을 하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입소 청소년들이 자주 책과 접하며 자연스럽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
-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1박 2일의 독서캠프가 추가로 진행이 되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니 큰 효과가 드러난 캠프였다. 파주에 있는 지혜의 숲 도서관, 출판단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 곳에서 독서미션 런닝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과 더운 친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독서 골든벨을 통해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활동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진행할 10회기 활동을 독려할 수 있었다.
-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서 쉼터에서의 생활 습관, 쉼터 밖에서의 생활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며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며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뇌 구조 그리기, 콤플렉스 탐색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통해 입소청소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자원을 탐색하며, 입소생들의 인지구조와 정서구조를 재설정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기의 성장을 꾀할 수 있었다.

나. 아쉬운 점

- 2016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아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나 2017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입소 청소년의 변동과 퇴소로 인해 참가자 수가 감소하였음. 기관의 특성에 맞게 회기 수나 진행방식을 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면 2016~2017년 도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에 더해 북 콘서트, 문화체험 활동,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여 진행하면 좋겠음.

참여
청소년
소감

-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훈이나 도움이 안 되는 동화책이라고 생각했다. 글도 많지 않고, 많이 보지 않아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독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글도 별로 없고, 내용도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생각 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독서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더 열심히 참여를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선생님이 재미있게 해주셔서 정말 재미있었다.

- 재미있었다. 특히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좋았다.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독서프로그램을 해서 좋았다. 시간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다양한 책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롤러장도 가서 재밌게 타고, 지혜의 숲도 가서 많은 책도 구경하고 북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료와 과자도 먹고 너무 재미있었다. 우리가 연극을 만드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웃음이 나와서 잘 못한 것이 아쉬웠다. 독서 퀴즈는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있었고,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 처음에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은근 재미있는게 많았다. 맛있는 것도 먹고 책 찾기도 하고, 책도 만들고 많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특히 둘째 날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었다. 연극을 만들어 직접 해보고, 독서 골든벨도 하고,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강사
소감

프로그램 담당 강사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입니다. 저는 부천모퉁이쉼터에서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대한 이해나 모퉁이에 대한 이해가 큰 상태로 2017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도에 이르기까지 참여를 한 학생도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 쉼터의 특성상 학생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지속성 있게 참여를 해야 어떤 도움이든 될 텐데, 쉼터 학생들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기타 쉼터 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 담당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강사
소감

본 심터에서는 2년 연속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을 진행하고, 또 다시 1년을 진행하고자 생각했던 것은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참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지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강사 선생님과 참가 청소년들의 관계가 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부터 강사 선생님과 입소 청소년들의 라포가 잘 형성 되었고, 강사 선생님이 기관과 입소 청소년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셔 무리 없이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참가 청소년 개인마다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고, 성취한 바는 다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잠시나마 자신을 성찰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하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치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되는데 자기 방어가 강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어놓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종종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활동이 끝나고 난 뒤 한결 후련해지고, 밝은 표정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특성상 불안정한 상황들도 있었고, 입소 청소년 수의 변화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청소년의 수가 감소하여 운영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길 높은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꿈 그려 DREAM!

(영문학 탐색 및 세라믹 핸드페인팅)

...

고양청소년쉼터 동지 / 고미림

20대에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30대가 된 지금까지 쉼터에서 다양한 아픔을 지닌 친구들과 부대끼며 알콩달콩 함께 살고 있는 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쉼터에서 10여년 근무를 하며 많은 친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커서 나가고, 또 다른 친구들이 오가며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남기고 간“작품”이었습니다. 금번 기회를 통해 나온 또 하나의 작품이 친구들을 그리워할 때 마다 달래주길 바라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귀 기관과 담당자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기간 2017년 9월 ~ 10월 (2개월, 총 18회)
장소 고양청소년쉼터 동지 단체활동실
인원 8명(누계: 148명)
내용 영문학을 통한 독서지도 및 세라믹 핸드페인팅

꿈 그려 DREAM!

(영문학 탐색 및 세라믹 핸드페인팅)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본 기관에 입소 및 이용 중인 청소년들은 주로 가출 및 방임, 학대, 가정 해체 등의 가족문제에 인하여 쉼터에 입소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긴장과 위축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사회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을 보호함에 있어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사회성 및 관계형성 기술의 발달 및 향상은 쉼터의 주된 사업 목적이다.
- 이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은 청소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게 되며 창작활동을 통해 목표를 가지고 수준 높은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 향상 및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문화 예술 활동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을 추구 하고,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일차적으로 지식교육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감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아주고, 나아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에 받는 문화예술 교육은 단순히 문화적인 소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에 도움이 되며, 인성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기 주도적 인간, 창의성과 개성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과도 직결된다.
- 특히, 본 기관은 복지기관이라는 특성상 청소년들이 충분히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문화 예술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 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 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더불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자기표현이 가능한 “책”이라는 매개와 입체적이고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친근한 도자기라는 기물이 매개체가 되어 일상속의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체험과 표현 중심의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체험적 문화 예술과 조우하고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미술교육으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방침

- 청소년들에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증가 시켜주고 독서활동 및 욕구를 높여 독서활동 및 문화예술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견문을 넓힌다.
- 체계적인 독서교육 및 공예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향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실제적인 독서활동 및 공예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과 조우하고,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정서를 함양하여 자존감을 높인다.
- 창작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꾀하여 청소년들의 자질을 내면화한다.
-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 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협동 작품 등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한다.

다. 운영 계획

- 18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
- 회기별 8명의 대상자 교육
- 문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독서활동
- 영문학의 이해를 위한 영어 표현 배우기
- 세라믹핸드페인팅을 통해 문학작품을 표현하기

라. 기대 효과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
-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표현의 경험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자신감 회복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궁극적인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감상하고 이해하고 즐기위해, 예술에 대한 이해와 미적 안목을 배양하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실현
- 청소년이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상처의 치유 및 회복
-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향상된 집중력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성취감 및 자존감 회복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력을 키워주어 창작을 요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기계발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씬터라는 특성과 청소년의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에 문화적 지식과 예체능 실기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잠재된 소질의 개발을 통한 청소년 자기계발의 기회제공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 내용

- 영문학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독서 및 영어 학습 진행
 - 문학작품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영어로 번역하여 영어학습을 하는 동시에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독서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및 아이디어를 세라믹이라는 기물에 그려 표현하여 작품 활동을 한다.

나. 운영일정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활용도서	비고
1	9월 19일(화)	● 책을 통해 나를 표현하기 ▶ 친밀감 형성 및 자기개방하기 ▶ 선생님과 청소년들의 자기소개 및 인사 ▶ 별칭 및 영어 이름 짓기 ▶ 프로그램 안내 및 활동 규칙 소개 ▶ 참여 동기유발 ▶ 활동소감나누기 ● 마음열기 ▶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위한 관심분야 및 취미 나누기	주강사 : 최 신 실 (영문학 지도) 보조강사 : 김 영 주 권 현 숙 (보조강사 및 도자기 페인팅 지도)		O.T
2	9월 21일(목)	● 시를 통한 나의 삶 들여다보기 - 나를 찾기 위한 길 ▶ 길 찾아가기! ▶ 나의 길, 너의 길 ▶ 마음으로 읽기, 생각으로 읽기		▶ 「안녕 나의 별」 ▶ 「함께 걸어요 그 꽃길」 ▶ 「다시, 봄」	1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3	09월 23일(토)	▶ 마음을 시로 표현하기! ▶ 나의 장단점 파악하기! ▶ 책 속 인물의 삶의 태도를 생각하며 책 읽기			
4	09월 26일(화)	▶ 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나눠보기! ▶ 자신의 꿈 생각해 보기 ▶ 원하는 기물을 선택하여 나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 꿈을 표현한 그림 위에 마음의 시를 새겨보기			
5	09월 28일(목)	● 문학 작품을 통한 자아 탐색 - 및 감정 탐색과 표출 ▶ 만다라 접시 만들기		▶ 「어린왕자 +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	2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6	10월 02일(월)	(도자기핸드페인팅 작업)		▶ 「보타니컬아트」	
7	10월 06일(금)	▶ 원형 기물을 통한 감정 브로치 만들어 보기 ▶ 자신의 감정 정리를 하며 나만의 블루데이 상자(函)만들기		설렘 수채 ▶ 꽃그림 작품으로 배우는 보타니컬 아트	
8	10월 09일(월)	● 마음열기 ▶ 나를 들여다보기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찾기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활용도서	비고
		● 자아 탐색하기 ▶ 내 마음의 색깔 찾기 ▶ 그림을 활용한 감정 인식 ▶ 백토 자화상 만들기			
9	10월 10일(화)	● 마음 노출하기 ▶ 감추어진 속마음 표현하기 (자기노출) ▶ 내 생각, 내 느낌 표현하기 ▶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나의 모습 돌아보기) ▶ 활동소감나누기 ▶ 인상 깊은 구절 찾아보기 ▶ 상징적 의미 알아보기 ▶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 정리 ● 마음 표현하기 ▶ 기물을 선택하여 가장 인상 깊은 구절 표현하기 ▶ 인상 깊은 구절을 찾아 새겨보기	주강사 : 최 신 실 (영문학 지도) 보조강사 : 김 영 주 권 현 숙 (보조강사 및 도자기 페인팅 지도)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마음 보기 연습」	3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10	10월 12일(목)	● 감정 인식하기 ▶ 내 감정 찾기 ▶ 문학작품 읽기 및 감상 ▶ 감정 화분 만들기 문학 작품을 통한 삶의 태도 탐색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4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11	10월 14일(토)	▶ 마음열기 ※작품 속 주인공의 삶을 찾아서 ▶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다. ▶ [마음으로 책 읽기, 생각하며 읽기]			
12	10월 17일(화)	● 작품을 통한 자아상 찾기 - 나의 장점을 찾아요(자존감 향상) ▶ 히어로물 영화 감상하기 ▶ 주인공이 되어 생각해 보기 ▶ 내 생각, 내 느낌 글과 말로 표현하기			
13	10월 19일(목)	● 나를 받아들이기 ▶ 자신의 강점, 약점 찾기 ▶ 책을 통해 인물 만나기 ▶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찾기 ▶ 내가 원하는 영웅 만들기 (내가 바라는 나)		「작은걸음」 「케스 매와 소년」	5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활용도서	비고
14	10월 21일(토)	● 문학 작품을 통해 바라본 가족 진정한 가족에 대해 생각하기 ▶ 가족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법 배우기 ▶ 좋은 가족 십계명 만들기 ▶ 내 생각, 느낌을 나누기 ▶ 가족화 그리기	주강사 : 최 신 실 (영문학 지도) 보조강사 : 김 영 주 권 현 숙 (보조강사 및 도자기 페인팅 지도)	「달콤한 나의 집」 「달빛 꼬끼리 끌어안기」	6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15	10월 24일(화)	● 문학 작품을 통한 꿈 그리기 ▶ 꿈을 이룬 인물 만나기 ▶ 내가 가고 있는 길과 가야할 길 ▶ 책 속에서 나 찾기 ▶ 나의 꿈 그리기		「무조건 살아 단 한번의 삶이니까」 「꿈을 이룬 99명의 꿈씨 이야기」	7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16	10월 26일(목)	● 책을 통한 성장(예술작품 감상) ▶ 문화 예술 향유하기 ▶ 1점의 명품		「손바닥 위 미술관」	
17	10월 28일(토)	● 마음열기 ▶ 연어의 모천회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배경지식 확장하기 ▶ 연어 바다에게 강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떠올리기(내용파악) ▶ 지금 내 모습과 지향하는 내 모습 말해보기		「연어」	8차 완성품 (세라믹 핸드 페인팅)
18	10월 31일(화)	▶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백토로 연어 만들기!			

다. 준비사항

- 프로그램 활용 도서
- 세라믹페인팅 도구
- 간식
- 프로그램실 준비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체험 중심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 독서교육 및 지도 활동을 통한 체험 예술 활동 제공
 - 공예활동을 통한 문화 체험 활동 제공
- 청소년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독서교육 및 지도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회복
 - 공예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회복
-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
 - 체험적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한 성취감 향상
 - 자기표현 활동의 자아성찰을 통한 자존감 회복
- 청소년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 집단 활동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향상
 -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및 대인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성 향상
-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 독서, 공예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 수료증 취득을 통한 진로 개발

나. 아쉬운 점

- 독서라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대상자들의 흥미 유도 및 자발적 참여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 같다.

TIP

본 기관은 독서교육과 함께 세라믹 핸드페인팅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였고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예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매 회기마다 즉각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 및 중도 포기하는 대상자 없이 함께 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
청소년
소감

책이라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었고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것도 일주일에 두번 세번을 하라니 짜증도 났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 단순한 독서활동인줄 알고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심터 저 심터, 상담센터 어디를 가도 매번 억지로 해야 해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만화책도 아니고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영어공부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 수업을 시작했는데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할지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첫 수업은 끝났고요. 그냥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제가 쓸 수 있는 컵이나 접시로 만들어 주어서 좋았어요. 그냥 책만 읽었으면 하기 싫고 재미없어서 싫었을 텐데 책도 읽고 설명도 해주고 도자기도 만들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해서 좋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책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 내용이 기대되기도 하고 솔직히 다음 번 간식은 뭘까 제일 궁금했고 또 무슨 그릇을 만들까?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책만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릇도 만들고 제일 좋은 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들이랑 많이 싸우고 프로그램 하자고 하실 때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한다고하면 이제 저는 제가 먼저 의자에 앉아있을래요. .

참여
기관
소감

독서라는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라 처음 시작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기초적으로 읽기가 되지 않아 학습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단순히 책을 읽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기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려면 더 다양한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독서라는 말만 꺼내도 하기 싫다며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는 아이들에게 실망감과 서운함도 느껴졌습니다. 한글자라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아이들이 야속해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봐주지 않고 제 기대만 채우려고 했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아이들의 무기력과 무관심만 탓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그래도 약속한 사업인데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민을 거듭해 아이들과 타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은 제 각각이었습니다. 만화책을 사달라는 녀석도 있고 책 대신 영화로 보여 달라는 녀석도 있고요.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아이들의 말 속에 읽는 활동 자체

참여
기관
소감

가 부담이지 책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활동과 아이들이 동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쉬운 동화와 익숙한 필독도서들로 수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라믹 핸드 페인팅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반신반의하며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따라주며 점점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는 아이들을 보며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냥 싫어할 것 같았던 독서라는 활동이 방법에 따라서 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차후에도 프로그램의 미비한 부분을 잘 보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대상자들이 원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를 잘 파악하여 끌어내어 주면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 질 수 있을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을 놓치고 그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던 일상과 순간들에 금번 사업을 통해 저 또한 되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희망충전소 보금자리, 미래의 꿈충전소와 함께하기

...

춘천교육문화관(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 사서 류지혜

춘천교육문화관에서 학교연계 독서활성화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쉼터아이들과 만나면서
저도 성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8회)
장소	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 인터랙티브아트뮤지엄
인원	6명(누계: 160명)
내용	독서프로그램, 멘토와의 만남, 문화체험

12 ...독서문화 프로그램 | 춘천교육문화관(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희망충전소 보금자리, 미래의 꿈충전소와 함께하기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쉼터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진로 등을 돕기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제공
- 책을 매개로 쉼터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돕고 진로 방향 제시

나. 추진방침

책 읽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존감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독서와 심리적 치유 방법 병행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쉼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 선정

다. 운영 계획

- 운영기간: 2017년. 4월 25일(수) ~ 10월 25일(수) / 매주 1회, 총 28회
- 참여기관: 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 대상 및 인원: 정원 8명 중 현원 6명
- 운영장소: 청소년쉼터 및 외부 장소
- 운영주제: 희망충전소 보금자리, 미래의 꿈충전소와 함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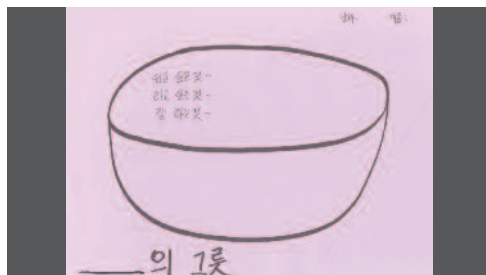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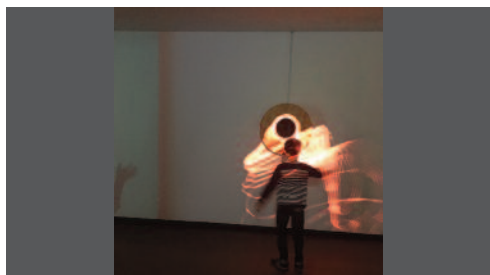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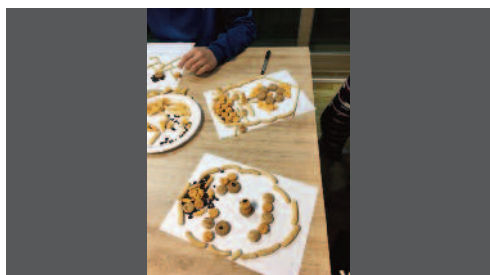
라. 기대 효과

- 책과의 만남을 통해 쉼터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 제공
-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개발 기대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아름다운 책」 「나」라는 그림책으로 청소년심터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그동안 도서관과 책과 친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재미있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딱딱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대신 자신의 얼굴을 과자로 표현해보고 함께 먹어보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똑같은 과자를 가지고 만든 자신들의 각자의 얼굴을 보며 신나했던 기억이 난다. 멘토와의 만남도 심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분야의 멘토분들을 초청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 7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전의 다른 독서프로그램보다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 책 읽기 프로그램 : 독서 전문 외부강사 20회 운영
- 인생 멘토 초청 프로그램 : 외부강사 3회
- 문화체험 및 공연 관람 프로그램 : 사서 2회 운영
- 북트레일러(책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 사서 3회 운영



나. 운영일정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1	4월 5일(수) 19:00~21:00	[마음열기] - 프로그램과 자기소개 - 별칭 정하기	「아름다운 책」 「나」
2	4월 12일(수) 19:00~21:00	[나 너 알기] - 나는 누구인가 - 모방시 쓰기	「만들레는 만들레」
3	4월 19일(수) 19:00~21:00	- 내 모습 관찰하기 - 약점 버리기 활동 - 내 마스크 만들기	「치킨 마스크」
4	4월 28일(금) 19:00~21:00	- 친구 알기 - 친구 소개글 쓰기	「나와 우리」 「눈맞춤의 힘」
5	5월 10일(수) 19:00~21:00	- 관계 맺기 - 친구사귀기용 카드만들기	「큰늑대 작은늑대」 「난 빨강」
6	5월 17일(수) 19:00~21:00	- 다양성 인정 - 친구들의 특징 조사 - 인터뷰 기사	「줄무늬가 생겼어요」 「넌 너, 난 나」
7	5월 27일(토) 10:00~14:00	- 문화체험(인터랙티브아트뮤지엄)	
8	6월 2일(금) 19:00~21:00	[마음풀기] - 감정인식 - 감정 나타내기 - 사진 찍고 감정맞추기 게임	「찰칵! 마음이 보여요」 「나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9	6월 7일(수) 19:00~21:00	- 감정인식 - 나만의 비밀도시락 만들기	「돌 씹어 먹는 아이」
10	6월 14일(수) 19:00~21:00	- 감정표현 - 욕대안 카드만들기	「욕시험」 「내말 좀 들어줄래」
11	6월 21일(수) 19:00~21:00	- 멘토초청 시간	
12	6월 30일(금) 19:00~21:00	- 감정표현 - 타인감정 이해하기 - 나만의 의자그리기	「곰씨의 의자」
13	7월 5일(수) 19:00~21:00	[마음 넓히기] - 자기수용 - 용기나무 만들기	「용기」 「뽀뽀뽀 가도 좋아」
14	7월 12일(수) 19:00~21:00	- 자기수용 - 나의소통방법 적기	「짚어봐 조지야」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15	7월 19일(수) 19:00~21:00	- 소통하기 - 소통의 힘든 경험 나누기	「한국아이+태국아이한테」
16	7월 28일(금) 19:00~21:00	- 편견깨기 - 내가 가진 편견 찾기 - 편견깨기 표어만들기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중 '아르미의 축제'
17	8월 2일(수) 19:00~21:00	[긍정적 자기강화와 비전] - 통과 의례 - 통과 의례 서첩만들기	「나아살이」
18	8월 9일(수) 19:00~21:00	- 자기수용 - 치료방법 함께 나누기 - 비밀책 만들기	「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책」 「있는 그대로가 좋아」
19	8월 16일(수) 19:00~21:00	- 긍정적 수용 - 친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 말해주기 - 체인지카드 만들기	「해피아저씨」
20	8월 23일(수) 19:00~21:00	- 멘토초청 시간	
21	9월 1일(금) 19:00~21:00	- 꿈 찾기 -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 - 직업카드로 꿈 찾기	「프레드릭」
22	9월 6일(수) 19:00~21:00	- 가치인식 - 내 꿈의 가치 찾고 명함만들기	「진짜 나무가 된다면」 「탈무드」
23	9월 13일(수) 19:00~21:00	- 영화관람	
24	9월 20일(수) 19:00~21:00	[마무리] - 새로운 출발 - 나와의 약속정하기 - 정체성 나무표현하기 - 프로그램 소감문	「아주 먼 바다 외딴 곳 작고 작은 섬에」
25	9월 29일(금) 19:00~21:00	- 멘토초청 시간	
26	10월 11일(수) 19:00~21:00	- 북트레일러 제작	
27	10월 18일(수) 19:00~21:00	- 북트레일러 제작	
28	10월 25일(수) 19:00~21:00	- 북트레일러 제작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대부분의 청소년 쉼터의 경우 책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습지도와 운동, 영화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 쉼터 청소년들에게는 새롭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 이번에 운영한 쉼터의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교 후 저녁시간 이후에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집중력을 보여줘 담당자와 강사 선생님 모두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아쉬운 점

- 청소년쉼터 독서프로그램의 다양한 자료와 사례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한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정보를 탑재하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쉼터의 아이들과의 관계맺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수업의 대부분을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서도 같이 참여하여 무엇보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

TIP

참여 기관 소감

강사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읽어 주신 책들은 그저 문자가 쓰인, 화려한 그림만이 남아있는 단순한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일상에 지쳐있는 아이들과 소통할 도구였고 아이들에게 생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쉼터의 아이들이 한 뼘 더 자라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소감

아이들이 매주 새로운 책과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어서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조금씩 책과 친해지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책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이 느껴졌습니다.

사서
소감

처음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할 때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는 잠깐의 기쁨뒤에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게 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준 쉼터 아이들과, 쉼터 선
생님, 정윤경 강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록

모방시 쓰기

날짜: 이름:

제목 :

나는 ()

()를 해도()

()를 해도()

()를 해도 나는 나예요.

()에서도 ()

()에서도 ()

()에서도 나는 나예요.

혼자여도 ()

둘이여도()

여럿이 있어도 ()는 ()

()를 해도 나

()를 해도 나

회억 바람 불어 날아가도 ()는 ().

인공지능 깨봇이 도서관에 왔어요 (UCC제작)

⋮

공주시 시립도서관(공주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 이진주
학교 밖 청소년을 처음 만나본 아무것도 모르는 사서입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2회)
장소 공주시청소년쉼터
인원 3~4명(누계: 91명)
내용 UCC영상제작 및 영화 감상 및 독후활동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13 ...독서문화 프로그램 | 공주시 시립도서관(공주시중장기남자청소년센터)

인공지능 깨봇이 도서관에 왔어요
(UCC제작)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문화소외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함.
-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정제된 가치정보를 구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협동학습을 통해 이해, 공감, 배려의 필요성을 체험하며 상호존중의 인성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추진방침

- 참여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을 수업을 기대함.
- 능동적인 독서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책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함.
- 치유적 성격이 있는 프로그램이길 원함.
- 영상제작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함.

다. 운영 계획

- 운영기간 : 2017년 7월 ~ 9월
- 운영횟수 : 10회 (매주 금요일 16:30 ~ 18:30)
- 프로그램 내용
 - 독서 및 UCC 영상 제작

회차	날짜 / 시간	프로그램 내용	참여 청소년 수	강사
1	7월 7일(금) 16:30~18:30	UCC 제작 : 인공지능	6	주재혜
2	7월 14일(금) 16:30~18:30	UCC 제작 : 감정이해		
3	7월 21일(금) 16:30~18:30	UCC 제작 : 갈등해소		
4	7월 28일(금) 16:30~18:30	UCC 제작 : 함께 사는 세상		
5	8월 4일(금) 16:30~18:30	UCC 제작 : 시나리오 작성		

회차	날짜 / 시간	프로그램 내용	참여 청소년 수	강사
6	8월 11일(금) 16:30~18:30	UCC 제작 : 대본 작성	6	주재혜
7	8월 18일(금) 16:30~18:30	UCC 제작 : 리허설		
8	8월 25일(금) 16:30~18:30	UCC 제작 : 촬영		
9	9월 1일(금) 16:30~18:30	UCC 제작 : 편집		
10	9월 8일(금) 16:30~18:30	UCC 제작 : 발표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12회의 독후활동 수업이 끝나고 주재혜 선생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UCC 제작수업 첫날은 프로그램 첫 수업과는 느낌이 또 달랐다. 의욕 넘치게 4차 산업에 대해 설명하시는 선생님께 '학교수업 같아서 짜증나요!' 라는 중학생 아이의 말에 선생님께서 적잖이 놀라신 듯 했다. 어찌어찌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학습적인 내용을 즐기면서,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편집된 영화 중간 중간 서로 이야기 도 나누고, 감정스티커 만들기 등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늘 툭툭대고 시큰둥하던 친구도 선생님의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을 열었는지 회차가 진행될수록 수업에 조금씩 관심을 보였다.
- 어느덧 8회차 수업 참여자들이 기다리던 영화 관람의 날이 왔다.매번 씬터에서 만나다 밖에서 영화도 보고, 선생님이 사비를 들여 카페에도 다녀왔다. 참여자들이 연신 들뜬 모습이었다.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대에 들어간 영화 속 주인공들 얘기와 함께 진로계획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는 등 한층 마음을 연 듯한 모습이었다. 대망의 UCC 영상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모형제작부터 촬영·편집까지 다들 열심이었다. 특히나 수업에 가장 참여도가 낮았던 ○○이가 목소리연기까지 함께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수업 마지막날 후반작업을 하고 함께 영상을 보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제 안 오시는 거라며 아쉬운 기색을 비치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씬터를 나왔다.





나. 운영일정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참여 청소년(명)
1	7월 21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영화 'AI'를 보며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기 - 감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4
2	7월 28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감상하고, 감정표현하기	4
3	8월 4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보고 성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눔	4
4	8월 11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감상 및 부모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표정에 관해 이야기하며 감정스티커 만들기	3
5	8월 18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감상 및 활동지 - UCC 영상제작 선정 토의	4
6	8월 25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사진을 보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며 영상제작에 대해 이해하기 - '숫자이야기'를 토대로 UCC 영상 구성에 대한 토의하기	4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참여 청소년(명)
7	9월 1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UCC 영상 제작 : 영상에 필요한 '숫자' 제작 및 스토리보드 완성하기	3
8	9월 8일(금) 18:30~20:30 메가박스 및 카페	- 영화 '청년경찰'을 관람하고, 이슈가 된 조선족 비하 관련 논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진로에 대한 고민 나누기	2
9	9월 15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UCC 영상 제작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숫자'모형 동작 및 음성 촬영하기	3
10	10월 19일(금) 18:30~20:30 공주시 청소년센터	- UCC 영상제작 : 스마트 폰 앱을 통한 영상 편집 및 감상하기 - 감상평 및 작업과정 돌아보기	3

다. 준비사항

차시	활용도서	준비물품	간식
1	「셀프혁명」, 「이봄에 햇살이 짙」	클리어 파일 활동지, 12색 싸인펜	-
2	「아닌 척! 괜찮은 척! 열다섯의 속마음」, 「마음의 미래」	12색 싸인펜, A4용지	-
3	「신나게 만들자 : 세계여행」, 「상처받을 용기」	12색 싸인펜, A4색지	-
4		12색 싸인펜, 유성매직 A4전지라벨, 반짝이펜	-
5		활동지, 12색 싸인펜	-
6		가위, 두꺼운색지, 모형눈알 꾸밈스티커, 글루건, 색연필	-
7		A4용지, 펜	-
8		영화티켓	팝콘, 음료
9		스마트폰	
10		스마트폰	피자, 치킨, 빵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공주시청소년쉼터의 경우 기관 내 프로그램의 부재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참여자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자발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독서습관의 정착을 꾀할 수 있었음.
- 참여자들의 연령이 18세 이상이 과반을 차지해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나. 아쉬운 점

- 참여자들과 라포 형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포형성에는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여러 선생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보다는 한 선생님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효율적임

사전 인터뷰를 통한 학습수준 및 니즈를 파악해야함.

TIP

학습수준은 낮더라도 연령이 높을 경우 그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여 청소년 소감

- 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금요일을 기대하곤 하였다. 책 읽는 것도 재미있었고, 함께 동영상상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현재 독서에 흥미를 갖고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 든다.

- 송○○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게 귀찮았다. 그냥 하루 쉬고 싶은데 학교 밖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조금씩 프로그램에 흥미가 생겼다.

흥미가 생길 무렵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참여
청소년
소감

- 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난봄부터 10월까지 학교 밖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평소 독서를 즐겨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도 향상되었다 생각한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다.

참여
기관
소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학교 밖 독서프로그램 덕분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

-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 고민이 많았는데 공주시 시립도서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덕분에 입소생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 프로그램 초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던 학생들도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수고해주신 강사님을 비롯하여 공주시 시립도서관에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강사
소감

- 주재혜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 공감 배려의 감정을 경험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마음 열어가는 그들을 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또한 행 정적인 기준으로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사서
소감

인생을 살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일부 참가자가 거친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불량한 수업태도에 놀라기도 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무심한 듯 배려해주는 모습, 선생님께 애정을 쏟는 모습 등을 보며 이 친구들도 여린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수업 날 스스로 학교 밖 프로그램 활용 도서를 읽었다면서, 수업이 끝남을 아쉬워 친구들을 보며 이 프로그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강민경 작가와의 만남

...

충청남도평생교육원(사단법인 드림학교) / 박혜진

저는 충청남도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진흥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를맡고 있는 사서 박혜진입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1회)
장소	사단법인 드림학교
인원	11명(누계: 231명)
내용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의 강 민경 작가를 초청하여 집필과정, 캐릭터 만 드는 방법 등 저자와의 만남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강민경 작가와의 만남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문화적으로 소외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환경 및 교육기회 제공
-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도와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나. 추진방침

- 한글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 선정과 책 읽기 수업(한글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그림책을 활용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여 학생들이 쉽게 책읽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강사와 담당 사서가 수업에 대한 의견교환을 수시로 나누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다. 운영 계획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6월 16일(금) ~ 6월 23일(금) 13:00~15:00	*목표: 작가와의 만남 준비하기 & 우리 고전 읽기 *주제 분야: 문학(고전) *독후활동 - 박지원 따라 열하 여행 경로 요약하기 - 박지원의 장관설: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 - 작가와의 만남 준비하기 - 작가님께 척독(짧은 편지)쓰기 - 사진과 그림 활용하여 게시판 꾸미기	강민경 「장복이」, 「창대와 함께 하는 열하일기」
6월 30일(금) 13:00~15:00	*작가님 안녕하세요!(작가와의 만남) 강민경 작가님과 함께 열하로 떠나기	

라. 기대 효과

-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도와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 기본을 다지는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및 사고력 향상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으로 한글에 대한 어려움과 책읽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눈높이에 맞추어 그림책 위주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책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운영 하였다.
- 평소 아이들이 선정도서를 읽고 독후활동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의 강민경 작가를 초청하여 저자와의 만남을 추진하였다. 강민경 작가님의 저서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는 조선후기의 학자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와 3년 동안 집필한 여행기로 성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냈다.
-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 열하일기의 박지원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시대를 사전에 공부해보고 사진과 그림을 활용하여 작가님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도 작가님을 실제로 만나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하며 손꼽아 기다렸다.
- 작가라는 직업과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탄생비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책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을 솔직 담백하게 들려주셨다. 강연회 때 나온 질문들과 소감문을 개인 자료집에 정리하여 다른 친구들과 서로 교환해보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역사적 가치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아이들이 우리나라 고전에 대해 이해하고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책의 단락별로 구역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틀리는 문장이 나오면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게임형식의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다. 학생들 별로 점수를 주어 제일 문장을 많이 읽은 친구에게 상품을 주기도 하고 틀린 부분도 서로 재확인 해보았다. 이러한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책 읽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나. 운영일정

- 2017년 4월 14일(금) ~ 10월 27일(금)

다. 준비사항

-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 도서, 간식, 수업재료(파일철, 머메이드지 등)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형성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 기본을 다지는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및 사고력 향상

나. 아쉬운 점

- 탈북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희망
- 학생들과 일정상 지역의 유적지 탐방, 체험학습 등을 하지 못하여 아쉬움.

TIP

학생들이 매 차시 수업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여 개인별로 파일을 만들어 소장할 수 있도록 권장(학생들도 수업의 내용에 대해 재정리해보고 자신이 만든 기록물을 보면서 성취감 향상에 도움)

참여 청소년 소감

매 시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학교에 와 주세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책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봉주루 뜨르” 기억에 남습니다. 북한 소년이 나오는 이야기라 더 관심 갖게 되었어요. 지난 번 강민경 작가님도 탈북학생들에 대한 글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쌤이랑 같이 젠가 게임 하게 돼서 기뻐요~! 사랑해요~♡

작가님 만났던 것도 좋았고요, 선생님께서 많은 책 보여주시는 것, 또 세계의 유명인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트 게임은 언제할거예요 쌤?

처음 젠가 게임한 날이 생각난다. 우리는 서로 너무 재미있게 웃고 그러면서 떨렸다. 왜냐하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느낌과 달리 잘 버텼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반이 행복해 하고 다른 친구 하는 것을 응원해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난 그 모습 보기가 너무 좋았다.(아이들이 이런 사소한 게임에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찡해 잡니다.)

저는 하늘 반부터 쌤을 만났어요. 여전히 쌤 수업이 항상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부족한 점 많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함께 책 읽고 포트폴리오 자료집 만들기 한 것 오래 기억할게요.

참여
기관
소감

학교 사정상 같은 책을 여러 권 구입할 수 없어 하나의 책을 보고 함께 독서하고 대화할 여력이 없었는데 학생 한 사람당 한권씩 책이 지급되어 수업이 넉넉하게 잘 진행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감사했던 부분 입니다.고등학교 반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비록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일반 남한 고등학생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만 그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책을 추천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양한 부문의 책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틈틈이 시간이 나면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파일을 제공하여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모을 수 있어서 자신들의 독서 발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만족해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고 학생들도 대체로 만족스러워하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소감

천안 드림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제도권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천안 드림학교(구, 하늘꿈학교)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탈북청소년을 배출하며 새 희망을 꿈꾸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는 2008년도부터 인연을 맺고 학생들을 만나 책에 대해 소개해 주는 독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했던 어떤 수업보다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을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같은 책을 여러 권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훨씬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이신 사서선생님과 실장님이 가끔 깜짝 방문해 주시며 가져오신 간식은 단연 최고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보다 「강민경 작가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책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를 모두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필사하고 독후활동 내용을 정성껏 코팅해서 작가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읽은 책의 저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이게 실화냐?”며 흥분지수 최고였고 2시간 동안 얼마나 진진하게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하는지, 보는 저 역시 기뻐했습니다. 그 날도 사서 선생님이 예쁘게 포장한 간식을 한 가득 보내 주셔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준비물을 넉넉하게 챙겨주신 것도 감사한 기억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책 읽기 힘들어 할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젠가 게임과 다트게임을 준비해 주십사 말씀 드렸는데 수업하다 집중이 떨어질 때마다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화분 만들기도 기억에 남는 준비물이었습니다. 자기 화분을 처음 가져본다는 아이들은 어찌나 지극 정성인지, 화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수업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서
소감

아직도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 또박 읽으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합니다. 다들 살아온 환경도 나이도 다르지만 책과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으로 성장해가고 그걸 지켜보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꿈을 찾는 독서여행

⋮

전주시립송천도서관(임마누엘청소년쉼터) / 김수현 담당사서

전주시립도서관에서 20년째 근무하면서 '어린이전문사서'라 칭하며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자 노력하는 사서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새로운 나의 사명을 알게 되는 사업이었다.

⋮

기간	2017년 5월 ~ 11월 (7개월, 총 27회)
장소	임마누엘 청소년 쉼터
인원	9명(누계: 117명)
내용	책과 관련한 독후활동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꿈을 찾는 독서여행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자녀교육’ 특화도서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을 매개체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아보도록 기회 제공

나. 추진방침

- 인성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 후, 자기자신 알아보기 등 진로관련 독후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꿈 탐색을 해보게 함.
- 역사·독서관련 전문가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여 책을 통해 즐거움을 알아가고자 프로그램 운영

TIP

후정,가족,사랑 등의 주제를 드러낸 그림책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말하고 서로 공감하도록 한다.

그림책은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등 읽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참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높아 색칠하기 등이 많았다.

다. 운영 계획

- 남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감과 문학적 기질을 높이기 위해 책을 선택하고 공감의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함.
- 야간프로그램 운영으로 송천도서관사랑모임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간식을 제공함.

라. 기대 효과

- 전자매체(스마트폰, 컴퓨터 등), 가정심리불안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이 책을 매개체로 자신의 마음을 읽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제공
- 꾸준한 책읽기를 통해 자존감 및 인성이 형성되고 자신의 꿈을 탐색하여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일정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1	5월 8일(월) 17:30~19:30	관계형성	프로그램 소개
2	5월 15일(월) 17:30~19:30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이해해요	「줄무늬가 생겼어요」
3	5월 22일(월) 17:30~19:30	모두가 시선이 다름을 인정해요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4	5월 29일(월) 17:30~19:30	나만의 언어로 단어를 표현해요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
5	6월 5일(월) 17:30~19:30	나와 주변인의 성격을 찾아요	「작은 아씨들」
6	6월 12일(월) 17:30~19:30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세상입니다	「관계」
7	6월 19일(월) 17:30~19:30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8	6월 26일(월) 17:30~19:30	지금 모습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제멋대로인 사람들」
9	7월 3일(월) 17:30~19:30	선택과 책임을 배워요	「수레바퀴 아래서」
10	7월 10일(월) 17:30~19:30	역사 이해 1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11	7월 17일(월) 17:30~19:30	감정(솔직)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 나누기	「솔직하면 안돼?」
12	7월 24일(월) 17:30~19:30	도서관 체험	* 달빛도서관
13	7월 31일(월) 17:30~19:30	역사 이해 2	「조선왕조실록」
14	8월 7일(월) 17:30~19:30	긍정적 언어의 힘을 배워봅시다	이해인 시집 중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작은 위로」
15	8월 17일(목) 17:30~19:30	책의 힘.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요	「난 무서운 늑대라구」
16	8월 22일(화) 17:30~19:30		영화관람 :혹성탈출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활용도서
17	8월 28일(월) 17:30~19:30	미래사회에 대한 토론	영화, 책 비교 토론
18	9월 4일(월) 17:30~19:30	상상 속에 있는 나의 별을 만나요	「어린왕자」
19	9월 11일(월) 17:30~19:30	‘배려’를 통해 대인관계를 생각해요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20	9월 18일(월) 17:30~19:30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21	9월 25일(월) 17:30~19:30	지금 모습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제멋대로인 사람들」 「백만번산고양이」
22	10월 16일(월) 17:30~19:30	경제교실1	경제전문가와 함께 실제 보험, 저축방법 배우기
23	10월 23일(월) 17:30~19:30	경제교실2	「수레바퀴 아래서」 질문을 통한 재테크 살아가는 방법알아 보기
24	10월 30일(월) 17:30~19:30	진실을 어떻게 얻는가?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이야기」
25	11월 6일(월) 17:30~19:30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마무리	
26	11월 20일(월) 17:30~19:30	플로리스트 진로특강 / 송현주 강사 (재능기부)	
27	11월 27일(월) 17:30~19:30	창의미술:나를 표현하고 미래이야기 / 박경환 강사 (재능기부)	

나. 준비 사항

항목	내용
활용도서	「줄무늬가 생겼어요」 등 60권
강사료	강사 24회, 특강 1회
독후활동물품	독후활동에 필요한 물품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 가능함.
- 역사를 이야기로 듣고 책을 읽고 질문을 하며 역사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됨.
-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툰 학생들에게 책의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계기가 됨.
- 저녁시간 스마트폰으로 인해 종이책 읽기를 멀리했던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될 수 있었음.
- 친구들의 감정이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되고 공감하는 방법을 알게함.

나. 아쉬운 점

- 저녁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억지로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동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학생들이 좀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법을 알고 싶음.
-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 안배가 충분하지 못했음. 몰입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어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참여자 학생들과 모임을 갖으며 함께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듯 함.

참여 청소년 소감

그림책을 통해 내 생각을 표현하기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듄(?)모습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 가끔 힘은 들었지만,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책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간 것 같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조○후)

운동을 좋아하는 나의 삶에 책임을 져야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 나에게 그림책이라니... 처음에는 무시가 되었다. 하지만, 빠지지 않고 참석하다 보니 그림책이 쉬우면서도 내 생각 표현하기가 좀더 수월해졌다. “도서관에서 꿈 찾기”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꿈에 대해 생각 해보게 됨이 좋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결석하지 않은 나를 칭찬하고 싶다(홍○원)

나의 표현이 시적이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의 글 표현에 칭찬을 들어서 좋았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비내리는 소리 같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너무 고요해서 정글에 온 것 같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재미있다.” 이 표현에 윤선생님이 놀라워하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행복했다. (송○민)

참여
청소년
소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다. 여자친구에 고민도 많고 눈물이 많이 나를 놀렸지만, 독서프로그램을 만나서 새로운 통로를 보게 되었다.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른 친구들도 힘들다는 것이다.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은 숨통을 찾게 되고 마음이 안정된 것 같다.(김○희)

담당
소감

책이라는 매개체에 거부감이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님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딱딱한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의 관심사와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되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수업이 재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서라는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강사님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지는 않으실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임마누엘 담당 조현재)

강사
소감

임마누엘 쉼터의 수업은 나에게 행운이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언어에 충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어제 사용한 언어와 오늘 내가 사용한 언어 중 전혀 다른 것은 몇 마디일까?
다양한 언어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도록 돕는 것이다. 독서 전도사로서의 사명.
책을 읽는 사람이나 책을 만나는 사람들은 삶에 여유가 있고 환경이 주어지는 행운이다. 책이 어느 계층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 사회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책에 대한 거리감을 만들게 된다. 내가 10년 넘게 고민해오는 일이다. 환경과 상관없이, 또는 독서량과 상관없이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 내가 찾은 해법은 책의 제목이나 표지만으로도 혹은 책 속의 한 줄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쌓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해서, 이번 미션은 책을 만나게 하는 것. 책이 재미있고 무언가를 담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책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엔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은 어렸을 적(초등 저학년?) 이후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독서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수동적 읽기에만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독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능동적인 읽기다. 바로 생각을 이끄는 행위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표현된 것을 행동해 보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통해 사고력과 더불어 집중력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수업 시간의 집중력마저 짧았다. 책보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강사
소감

고민 끝에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기에 가장 효과적인 그림책을 기본 교재로 정하고 그림책에서 나온 이야기의 주제로 확장될 도서를 보여주는 확장형 수업을 진행했다. 첫날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선생님, 우리 그림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쉬운 책이잖아요.”

“근데요. 그림책이 뭐예요?”

질문이 쏟아지면서 그림책을 너무 쉽게만 본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책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림 하나하나에 스토리를 만들게 하고, 연상활동부터 독후 활동 그리고 토론까지 하다 보니 그림책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제는 명화를 통한 생각나누기, 신화를 통한 인간 본성이야기에 이어 영화 동영상 상을 이용한 역사까지 섭렵하고 있다. (수업 식 외우기에도 도전했으나 역시 무리가 있어 아쉬웠다.) 이야기 수업을 통해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 뭔가 변화된 삶을 원하는 아이도 있음을 알았다. 다만 지내온 환경 때문인지 꿈을 무겁게 생각했다. 꿈이란 단어대신 도전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으로 그려보고 말해보게 했다. 그러다보니 자신감이 없는 자신의 민낯을 만나게 되었다. 힘들지만 필요한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때론, 건강한 청소년답게 여자에 관심도 많았고, 게임에 빠져있는 모습이 자식을 키우는 내 눈엔 귀엽기만 했다.

무엇보다 내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라며 꾸뻑거리던 아이들의 모습에 어른으로써의 책임감과 미안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시간을 주자 감성적 사고를 지닌 아이, 표현력이 유연한 아이,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와 그림에 재능 있는 아이도 보였다. 특히, 그림에서 보이는 색깔이나 표현력 무엇보다 집중력을 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이곳 쉼터의 목사님이나 사모님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었다.

아빠와 엄마처럼 자신들을 돌봐주고 관심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었다.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인지 그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졌던 순간이다.

가르침이란 늘 나의 것이 누군가에게로 가고 누군가의 것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얻는 창작의 발을 뒹구는 행운과 같다.

강사
소감

처음에는 서먹하고, 대답대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들이 언제부터나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해주니 고마웠던 순간도 있다.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통해 생각의 성장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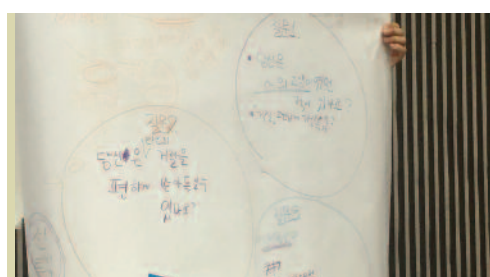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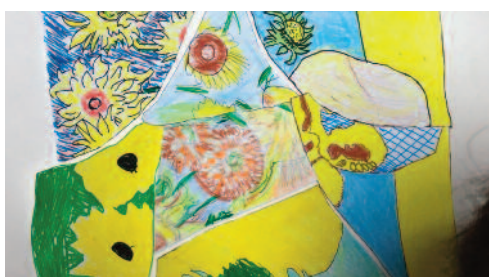
저녁식사 직후, 피곤함이 몰려 올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나에게게 곁을 내주었던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 같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너무도 요해서 정글에 온 것 같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재미있다.”

글쓰기 수업에 나온 한 학생의 글로 마무리한다.

사서
소감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향을 책자를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까 장기프로그램을 버틸수 있을까? 여러 고민 끝에 강사선생님 섭외에서도 생각이 많았다. 그런 중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역사와 그림책에 열정을 가진 강사를 찾게 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심리수업은 접고 독서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성하게 되었다. 처음시작과는 달리 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사선생님과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강사선생님이 존경스러웠다. ‘달빛 도서관’으로 저녁에 도서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았고, 마음을 본 것 같다. 씩씩한 척 이야기하는 친구들 말속에서 뭔가 모를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나보다 강한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배우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다. 이후 프로그램이 지속되었고, 담당자로서 계속적으로 함께하지 못함에 미안함이 많게 되었다. 다음에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토요일 시간으로 도서관에서 8회-10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긴다.



보도자료

세만금일보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004면 사회

전주시립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와 국가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전주시립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와 국가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독서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아동도서관과 송원도서관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과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에 각각 선정됐다.

먼저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주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제철프로그램, 공연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또한 송원도서관은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화 취미를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과 함께 진로와 꿈 찾기 △멘토 강연 △독서캠프 △영상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조성환 기자
/jsh6404@naver.net

전주일보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002면 중립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전주시립도서관, 국가공모 선정

전주시립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와 국가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22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아동도서관과 송원도서관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과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에 각각 선정됐다.

먼저,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주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제철프로그램,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송원도서관은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화 취미를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과 함께 진로와 꿈 찾기 △멘토 강연 △독서캠프 △영상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송원도서관이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인문학을 청소년 힘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마음 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전북일보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005면 사회

전주시립도서관 국가공모사업 선정 '줄이어'

2017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정보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주시립도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22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아동도서관과 송원도서관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과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에 각각 선정됐다.

아동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주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제철프로그램,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송원도서관은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화 취미를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과 함께 진로와 꿈 찾기 △멘토 강연 △독서캠프 △영상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전라일보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007면 사회

전라일보



전주시립도서관 국가공모사업 선정 줄이어

아동·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각각 선정

전주시립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22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아동도서관과 송원도서관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과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에 각각 선정됐다.

아동·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정보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제공

아동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주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제철프로그램,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일보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004면 사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전주시립도서관, 국가공모사업 줄이어... 독서 재원 확대 기대

전주시립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22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아동도서관과 송원도서관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과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에 각각 선정됐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먼저,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주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제철프로그램,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송원도서관은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화 취미를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과 함께 진로와 꿈 찾기 △멘토 강연 △독서캠프 △영상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정보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제공

아동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주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제철프로그램,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일보

2017년 02월 23일 목요일 002면 사회

전주시립도서관, 국가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추진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전개

전주시립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22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아동도서관과 송원도서관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과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에 각각 선정됐다.

먼저,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주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제철프로그램,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송원도서관은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화 취미를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과 함께 진로와 꿈 찾기 △멘토 강연 △독서캠프 △영상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김주환 기자

BOOK(積) BOOK(積)

...

목포시립도서관(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김태영

목포시립도서관 사서 김태영입니다.

사업 후반에 업무를 맡게 되어 많은 부분 서툴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아이들과 꿈드림 담당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1월 (8개월, 총 25회)
장소	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인원	9명(누계: 233명)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습관 형성하는데 기여

BOOK(積)BOOK(積)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책을 이용한 다양한 매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자 함.

나. 추진방침

- 지속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의지를 높일 수 있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독서치료, 미술치료, 연극인등 전문강사, 보조강사, 도서관 담당사서 등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안정감 유도

다. 운영 계획

- 독서프로그램 20회(마음을 여는 시,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독서 및 독후활동 등)
- 자화상 그리기 1회
- 연극인과 함께 하는 독서활동 3회
- 도서관 이용지도 등

라. 기대 효과

- 학업 중단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긍정적 삶의 태도 형성 및 인식 개선 기여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및 일정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참여자수	활용도서
1	4월 12일(수) 13:30~15:30 목포시립 도서관	1) 도서관 홍보 PPT상영 2) 사서(문헌정보학과)란 무엇인가? 3) 독서활동 4) 느낌나누기	장숙진	11명	
2	4월 19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프로그램 소개 2)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정채봉 “첫 마음”) 3) 팝업북 기법으로 자기 소개 하기 4)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5) 책은 왜 읽어야할까요? 10개 쓰고 발표하기 6) 도서관 선생님 소개	엄경화	10명	「난 무서운 늑대라구!」
3	4월 26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윤동주 “서시”)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3) 버킷 리스트 작성하기 4) 스크랩북 만들어 버킷 리스트 적기 5) 책 함께 읽기	엄경화	10명	「백만 번 산 고양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
4	5월 10(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3) 이야기 주머니 만들기 4)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 이야기 나누기	엄경화	10명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자전거 도둑」
5	5월 17(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나태주 “풀꽃”) ▶ 풀꽃 시화 그리고 시 쓰기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3) 미니책(시화) 만들어 전시하기 4) 「할머니를 따라 간 메」 함께 생각하며 읽기 ▶ 줄거리 이어 말하기	엄경화	10명	「도서관 생쥐」 「할머니를 따라 간 메」
6	5월 24(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얼굴은 그동안 살아온 나를 반영한다. 잠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갖기 2) 이목구비의 비율을 생각하며 특징 있는 부분을 잘 나타내어 스케치하기 3) 명암을 살려 채색하기 4) 자화상을 그린 후 그림 설명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 갖기	곽화성	11명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참여자수	활용도서
7	5월 31(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신경림 “갈대”)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3) 그림책 명언 옮겨 적기 4) 성공하는 말 / 실패하는 말 4P 책 만들기 5) 내가 키우고 싶은 반려 동물 이야기 나누기	엄경화	12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햄 뭐라나 하는 쥐」
8	6월 7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이태준 “엄마 마중”) 2) 시화 꾸미기 3)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4) 이럴 때 나라면? 5) 작품 속 고유어 속담 찾아 짧은 글 짓기	엄경화	9명	「이럴 때 너라면?」 「운수 좋은 날」
9	6월 14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장석주 “대추 한 알”) 2) 시 낭송 대회 개최(그림책 시상) 3)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4) 내 가방 속 들여다보기 5) 책표지로 미니 쇼퍼백 만들기	엄경화	8명	「아씨방 일곱 동무」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시」
10	6월 21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유연숙 “별은 낮이 되고”) 2) 시 낭송 대회 개최 3)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읽기 4) 내가 기다리는 것은? ▶ 시 쓰고 시화 꾸미기 5) 작품과 영상 비교하며 읽고 이야기 나누기	엄경화	10명	「나는 기다립니다」 「소나기」
11	6월 28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마음열기 - 연극의 기원 - “과정”드라마의 이해 - 나와나 알아가기 - Book 속 연극기법 〈등장인물〉	나상문	11명	연극놀이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참여자수	활용도서
12	7월 5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서정주 “자화상”)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나무를 심은 사람」 3) 「메밀 꽃 필 무렵」▶ 돌려가며 읽기, 뺏어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낭독하기	엄경화	10명	「메밀 꽃 필 무렵」 「나무를 심은 사람」
13	7월 12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구상 “초토의 시”)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개구리네 한 숯밥」 3) 「일가」▶ 돌려가며 읽기, 뺏어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낭독하기	엄경화	8명	「일가」 「개구리네 한 숯밥」
14	7월 19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도서관에 간 사자」 3) 「일가」2 ▶ 미니 독서 골든벨	엄경화	9명	「일가」 「도서관에 간 사자」
15	8월 16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연극인이 함께하는 독서 활동(3명)			
16	8월 23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기형도 “엄마 걱정”)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아름다운 가치 사전」 사각 주머니를 활용한 스타북 만들기 1 3)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2▶ 대본 만들어 역할극 하기	엄경화	4명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름다운 가치 사전」
17	8월 30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김춘수 “꽃”)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세 강도」 ※ 아름다운 가치 사전을 사각 주머니를 활용한 스타북 만들기 2 3) 「봄봄」 1▶ 돌려가며 읽기, 뺏어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낭독하기	엄경화	9명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름다운 가치 사전」 「세 강도」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참여자수	활용도서
18	9월 6일(수) 9:20~12:00 목포 롯데시네마	* 찾아가는 독서 활동 : 김영하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영화 관람 => 감상평 나누기 (11명)			
19	9월 13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윤동주 “별 헤는 밤”)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사라 버스를 타다」 * 아름다운 가치 사전을 사각 주머니를 활용한 스타북 만들기 3 3)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 작가 소개: 나도 작가처럼 소개서 쓰 기와 발표하기	엄경화	9명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1」 「사라 버스를 타다」
20	9월 20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유치환 “행복”)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행복한 청소부」 * 아름다운 가치 사전을 사각 주머니를 활용한 스타북 만들기 4 3) 나의 행복 10가지 소개하기 => 행복 액자 만들기	엄경화	10명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2」 「행복한 청소부」
21	9월 27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이육사 “광야”)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지하 정원」 3) 내가 가꾸고 싶은 나만의 정원 꾸미기	엄경화	11명	「어린 왕자」 「지하 정원」
22	10월 11일(수) 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연극인이 함께하는 독서 활동(11명)			
23	10월 18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정호승 “고래를 위하여”)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 읽기 => 「넌 어떤 씨앗이니?」 3) 씨앗 엽서 만들기	엄경화	8명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 들」 「넌 어떤 씨앗이니?」

회차	일시 / 장소	프로그램 내용	강사	참여자수	활용도서
24	11월 1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 마음으로 여는 시 함께 낭송하고 느낌 나누기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2)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함께 읽기 => 「난 황금알을 낳을 거야」 3) 내가 아끼는 것 Best 10 4) 나의 작은 “어린 왕자”책 만들기	엄경화	9명	「어린 왕자2」 「난 황금알을 낳을 거야」
25	11월 8일(수) 13:30~15:30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수료증 수여식> 1) 우리들의 추억 영상 2) 내가 아끼는 시 낭송 대회 3) 소리 내어 읽는 즐거움 => 그동안 읽었던 책 중 한 권 선정해 낭독하기 4) 수료증 수여식 5) 기념 촬영	엄경화	11명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2017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우수프로그램공모전 장려상 입상

나. 아쉬운 점

-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통한 독서프로그램으로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참여 청소년 소감

고00(21세, 여)

독서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감정표현을 하게 되었고 옛날에는 그냥 읽었던 책이 이제는 여러 책을 보면서 그 작가의 감정이나 글 또는 시의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다.

제일 인상 깊은 프로그램은 모든 참여하는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감정을 공유하는게 너무 좋았다. 독서로 인해 조금 더 한걸음 책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

참여
청소년
소감

함00(19세, 남)

원래는 책도 안 읽고 관심도 없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책을 읽고, 시를 읽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을 보고 내용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만들기 시간도 있어 만들어 보고) 내 작품을 보고 뿌듯해 하면서 재미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여
기관
소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손쉽게 접근이 용이한(스마트폰, 미디어, PC방, 노래방 등) 매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표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프로그램 필요성 느끼며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생각 전환 및 문해력, 창의력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진로 방향 설정 등을 돕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으며, 단 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지라도 참여 청소년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및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초기 진행시 우려했던 염려와는 달리 북아트,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독서 및 독후활동을 통해 문장이해력 향상되었으며 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짐으로 청소년 간, 강사 간 서로 감정교류가 잘되어짐으로 심리·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졌다. 2018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본 프로그램이 재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소감

처음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다소 불안하고 과연 아이들의 참여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마칠 때 쯤엔 내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고루한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들,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꿈드림 선생님들과 매회 매회 고민과 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준 강사분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좀더 공부하고 준비해서 아이들 마음에 작지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형극공연 제작 및 발표

⋮

진양도서관(클라라의 집) / 강정욱

진양도서관 강정욱 사서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느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간	2017년 4월 ~ 9월 (6개월, 총 27회)
장소	진주심리언어발달센터, 진양도서관 등
인원	5명(누계: 126명)
내용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인형극 제작 및 발표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인형극공연 제작 및 발표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사업에 참여한 ‘클라라의 집’은 중장기 쉽터이기 때문에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책 읽기를 통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함.
- 특히나 인형극 제작과 발표를 통해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함.

나. 추진방침

- 목표를 정해줌 : 인형극공연 발표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줌.
- 연습 일정을 방학을 이용하여 토요일 많은 시간 할애
-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스스로 인형극을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부가적인 활동은 관여를 안 함(의상준비, 공연 준비물 등).

TIP

긍정적인 자아상 회복, 자아존중감 향상이 목표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증을 잘 내고 무기력감에 빠진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목표의식,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짜증을 내거나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간약속과 책임감을 주게 하였습니다.

다.운영 계획

- 인형극 제작 : 인형극으로 만나는 ‘참 예쁜 나’

라. 기대 효과

- 인형극 공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아성장을 도모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7월 1일(토):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 공연을 이야기 하고 설명, 인형극 무대와 소품을 가지고 놀아봄.
- 7월 8일(토): 대본 연습과 인형기구 연습
- 7월 15일: 인형을 직접 끼고 본격 공연연습 시작
 - 이후에도 8월 19일(토) 공연까지 아이들이 인형극 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함.
- 8월 19일: 진양도서관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 운영”에 인형극 공연 준비
 - 어린이실에서 어린이 60명 앞에서 20분간 ‘소가 된 게으름뱅이’ 공연
 - 무대의상을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공연 전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직접 준비하고 나눠줌
- 8월 26일, 9월 2일 인형극 연습(대본 녹음 및 피드백)
- 9월 9일: 요양원 어르신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봉사활동

나. 운영일정

일시	내용
7월 1일(토), 7월 8일(토), 7월 15일(토) 13:30 ~ 17:00	인형극 제작 준비 및 연습
8월 19일(토) 13:00 ~ 14:00	인형극 공연(진양도서관 어린이자료실)
8월 26일(토), 9월 2일(토) 13:30 ~ 17:00	인형극 제작 준비 및 연습
9월 9일(토) 14:00 ~ 15:00	인형극 공연(요양원)

다.준비 사항

- 활용도서 : 「소가 된 게으름뱅이」
- 준비물 : 간식, 앰프, 녹음기, 인형극 세트, 무대의상 등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스스로 공연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위해 공연을 했다는 성취감 획득

나. 아쉬운 점

-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고, 사업단에서의 준비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참여기관 원장님과 강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참여 청소년 소감

공연을 준비하면서 짜증도 많이 나고,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짜증을 받아준 강사선생님께 미안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참여 기관 소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강사&사서 소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치유서인 책 읽기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나를 찾는 시간여행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강은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획일화된 독서지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즐겁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

기간	2017년 4월 ~ 10월 (7개월, 총 26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인원	6명(누계: 161명)
내용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본 운영기관의 사례는 전체프로그램 중 특정 회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나를 찾는 시간여행

1.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추진목적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아성장과 치유를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추진방침

- 청소년쉼터 선정, 책 선정, 쾌적하고 최신 기기가 설치된 강의실 마련, 학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강사섭외, 준비물, 상품, 봉사자 섭외 등
-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수업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한 생각의 폭을 넓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며 온전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운영 계획

- 운영기간: 2017년 4월 4일 ~ 10월 24일 매주 화요일 20:00~22:00
- 운영횟수: 26회
- 프로그램 내용
 - 독서 및 독후활동,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도서관 회원증 발급, 도서 대출)
 - 다양한 도서와 연계한 인생 멘토,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독후 활동
 - 독서+미술, 독서+연극 등 독서와 융합한 다양한 활동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

라. 기대 효과

-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타인의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기르고자 함.
- 융합장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지도를 통해 자아성장과 치유를 돕고자 함.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 운영내용

- 일시 : 2017년 4월 11일(화) 20:00~22:00
- 내용 : 나를 찾는 시간
 - '나를 찾는 시간'을 주제로 한 수업이었습니다. 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강사가 잘 이끌어 주었는데 '내 이름 찾기 게임', '나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초성으로 나를 표현하기, 독특한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놀이처럼 진행하니 학생들은 별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 학생 사례
 - ㄱ- 그냥이라는 말을 좋아해, 과학적인 삶을 살고 싶어, 고양이를 좋아해.
 - ㄴ- 나무로 우거진 숲을 좋아해, 남자 친구가 없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 ㄷ- 다른 생각 할 때가 많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답답하다.
 - ㄹ- 라면을 자주 먹지 않아, 러시아에 가 보고 싶어.
 - ㅁ- 못된 애가 아니고 난 재밌는 애야, 몸치다.
 - ㅂ- 바르고 올바르게 커서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붉은 색을 싫어 해.
 - ㅅ- 소리에 민감하다. 시원한 여름이 좋아, 새우를 좋아해.
 - ㅇ- 아침을 좋아한다. 엄마를 만나면 항상 행복해.
 - ㅈ- 집이 생기면 꼭 피자파티를 꼭 하고 싶어. 잠이 많아.
 - ㅊ- 추억을 중요시 해, 초콜릿을 좋아해, 처음에는 모든 걸 낮가려.
 - ㅋ- 카톡을 자주해, 커서 최고 디자이너가 될 거야.
 - ㅌ- 튼튼해져서 오래 살고 싶어, 통화도 자주해
 - ㅍ- 파이팅한 하루가 좋아
 - ㅎ- 하늘을 좋아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 휴식시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강사가 "오늘은 자유롭게 에세이를 써 보면 어떨까?"라고 하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학생들과 눈빛을 교환하자, 학생들은 "맛있는 간식을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라며 웃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니 스스럼 없이 제시해 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식 전달 이전에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16세 -중학교3학년>

현재 내 삶의 온도는 8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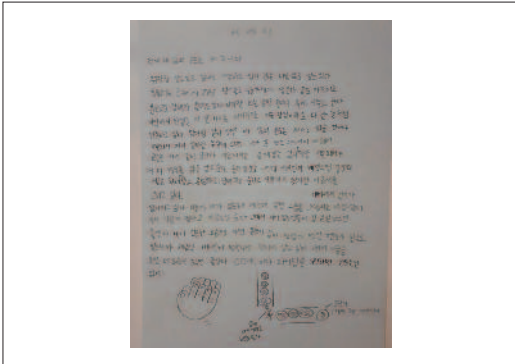
주구장창 살고 있고 알바도 가끔 하고, 쉽지 않은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힘들 때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에게 앵킨다. 욕도 자주하고 분노조절 장애가 올 때도 있다. 하지만 화는 금방 풀리니 속에 놔두고 산다.

아직 인생을 다 산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다 산 것처럼 만족하고 싶다. 엄마랑 같이 살면 내 삶의 온도는 100℃였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랑 못 살게 되면 내가 꼭 최고 디자이너가 돼서 큰 집을 사서 같이 살 거다. 지금까지 좀 재밌는 삶이었지만 어른 돼서는 더 더 재밌는 삶을 살고 싶다. 눈치 안 보고 나에게 내 자신이 썩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침터에 살고, 공부도 못하고, 담배 피고, 술도 마시며 나쁜 애가 됐지만 이 문제를 고치고 싶다. 더 예뻐져서 인기도 많아지고 싶다. 나중에 내가 성공해 예전에 살던 그루홈, 지금 사는 여성 침터 가서 이렇게 컸다고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입소생들이 날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한 모습으로 가면 본보기 삼아 인생의 멋진 멘토가 될 수

도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내 자신이 뽀뽀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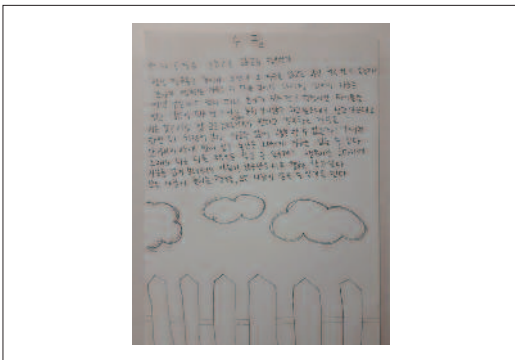
커서 이 글을 보면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 00야, 아자 파이팅!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



● < 19세 -고등학교 3학년 >

나, 자유를 잃고도 행복할까?

항상 자유롭고 싶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잃고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는 다 다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떤 것일까? 멀리 떠나 혼자가 되는 것? 학생이란 타이틀을 벗고 성인이 되는 것?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자유를 한번 더 되짚어본다. 자유를 잃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살아서 이 땅에 발 붙여 있는 동안은 나에게 자유는 없을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행복이란 울타리에 자유를 넘겨 보내줘도 아쉽지 않을 만큼 다른 행복을 찾고 싶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 18세 - 대학교 1학년 >

미완성

어릴 때에는 질문이 밤하늘의 별 만큼이나 많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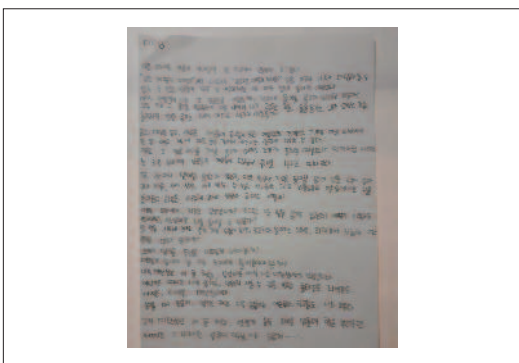
“꿈은 어떻게 꾸어요?”부터 시작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지금의 나조차 대답해 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맑은 날 여우비처럼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내려왔다. 아아, 어렸을 적 나는 그 질문들을 어른들께, 친구에게 물어볼 용기가 있었나? 그럼 지금 그 용기들, 뽀뽀하게 다른 이에게 내가 궁금한 것을 물을 용기는? 내가 모르는 것을 묻고, 대답을 듣고, 새로운 사실들이 동그랗게 굴러 머릿속으로 감겨오면 그것으로 마냥 으쓱해서 잠 못 이루고,

밤 새 잠든 동생 곁에서 가만가만 설명해 주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그 질문 하나를 꺼낼 용기가 없어진 것일까 꿈처럼 떠올랐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하루 수백 개의 질문들이 머릿속에 답답한 물기를 남기고 떠나간다. 말 한 마디 뱉어낼 용기조차 없는데, 이런 한심한 자신을 돌아 볼 용기가 있을 턱이 없다. 자기 개발, 자아 성찰, 자기반성, 수많은 책, 음악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씀에서는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사랑해 보아라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은 무엇이며, 저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만 말 뱉을 용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변해버린 한심해진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 몇 번을 시도해 보아도 중간 즈음 되돌아보면, 폭포처럼 쏟아지는 두려움, 죄책감에 짓눌려 그만 생각을 멈추기 일쑤이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할까?

아직 미완성인 이 글처럼, 무엇 해도 아직 나는 미완성이며, 진행 중이다. 어딘가로 떠나간 나이 용기도, 영원히 지울 수 없을 법한 흉터 같은 죄책감도, 아직은, 아직은 미완성이다. 용기를 다시 얻을지, 연기는 커녕 더욱 잃을지는 어른들도, 친구들도, 나도 모른다. 그저 미완성인 이 글처럼, 언젠가 문득 주변을 맴돌며 향을 뿌리우면 어쩌면 그 때에는 온점이 찍힐지도 모르지…….



- 수업 시작하면서 강사가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걸 싫어하면 또 어찌지? 짜증을 내면 어찌지? 하는 등 고민했던 것은 제 관한 기우였습니다.
- 학생들은 꽤 진진한 표정으로 글에 자신을 털어놓았고, 직접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 칭찬의 말을 건네주며 수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나. 준비사항

- 도서 「나는 나야 그렇지?」(독일 바이에른아동철학아카데미/시금치)
- 나에 대한 체크리스트 활동지, PPT 독특한 명함자료, 에세이쓰기 주제 활동지, 기본필기구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가. 성과

-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며 친구들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소통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획일화된 독서지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즐겁게 학생들과 소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었고, 많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독서수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보람된 시간이었음.
- 처음 도서관으로 왔던 날, 수업하기 싫다는 말로 시작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이 26주간의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고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음.

(16세 - 중학교3)

4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하던 독서프로그램이 10월 24일 막을 내린다. 첫 번째 오던 날 연극 선생님, 미술 선생님, 독서지도 선생님이라 아주 재밌게 놀았던 게 생 각이 난다. 7개월 동안 많은 재미와 아쉬움, 시원섭섭하다. 한 때는 가기 싫다고 성질을 부린 게 민망하고 아쉽다. 언젠가 다시 한 번 만난 날을 기약하며…….

선생님,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원래 방에 책이 없는데 프로그램과 쌤 덕 분에 여러 종류의 책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성격이 말은 해 놓고 뒤에선 할 거 다 해요. 제가 쌤한테 머리광 피우며 책 읽기 싫다. 여기 오기 싫다. 한 거 모든 게 진 심인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7개월 동안 입소생도 많이 바뀌면서 변화 된 게 많았 을 텐데 들어오는 입소생들한테 차별 없이 항상 반겨주셔서 대신 감사합니다. 맨 날 간식도 사 오시기 힘들 텐데 저희 밥 안 먹었을까 걱정하며 간식 챙겨 오시는 게 좀 죄송하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언젠간 볼 일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쓸게요.

이번 프로그램 엄청 재미있었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개월 동 안 저희를 안 포기해 주신 것에 더 감사드립니다. 나중에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성공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심터 꼭 기억해주세요. 제일 좋았던 학생들 이라고 기억에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만수무강 하세요.

(15세 - 중학교2)

여기 와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 박스로 집도 만들고, 물감을 이용해 데칼코마니도 하고 음식으로 캐릭터 만들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잡지 활용해서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거, 싫은 것 등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도 해 보았는데 다 른 곳에서는(학교) 대충대충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뭔가 열심히 하게 되었다. 열심히 하니까 그 만큼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해서 또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줄리거나 귀찮아도 얘기 잘 듣고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

참여
청소년
소감

참여
청소년
소감

(18세 -고등학교2)

저는 9월 19일 심터 입소하기 바로 전에 이곳 한라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오늘 10월 24일을 끝으로 선생님과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 정도 참여했는데 책도 고박고박 잘 챙겨주시고, 프로그램 진행도 맛깔나게 해주신 선생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학생들과 상대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으셨을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밥을 사주신다는 말에 눈물이 앞을 가리웁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에 나중에 또 이런 유익한 시간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강사
소감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마치며 그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니 제일 먼저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과 생활하며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것은 바로 '마음열기'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놓는 법을 잘 몰라서 오히려 말을 툭툭 내뱉거나 발톱을 세워 자신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르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며 차분히 그 애기들을 들어주고, 표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글로 내뱉어내는 낱것의 감정들에 개인적인 판단을 더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차분히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업 초반에 제시했던 방법을 사용해 글로 표현해내기도 했습니다.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문학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볼 땐, 매 순간 좋은 일들로만 가득했던 삶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순수한 모습들이 보여 팬스레 기특해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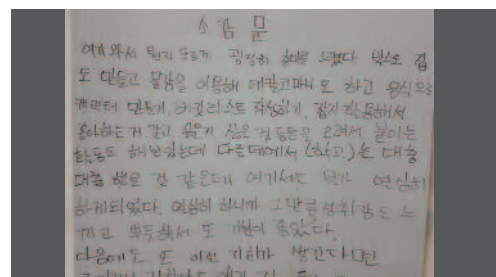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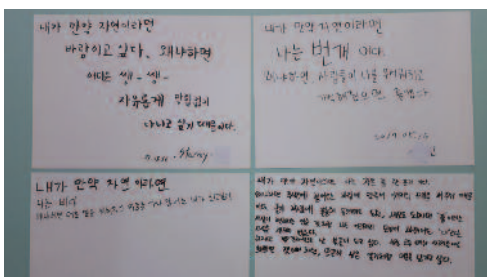
앞으로 학생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생활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잠시나마 즐겁게 웃을 수 있었던 시간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사서
소감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26주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획일화 된 독서지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즐겁게 학생들과 소통하면 좋겠다고 생각 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문학과 친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들을 문학으로 표현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면 어쩌나. 많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하고 새로운 문학 수업들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은 곧잘 따라왔고, 자신의 글과 작품들을 만들며 뿌듯해 했습니다. 학생들은 글을 이렇게 많이 써본 건 처음이라고 하기도 했고, 예전보다 책을 많이 읽게 됐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수업 오기 싫다는 말로 강의를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을 써냈고, 친구가 발표하면 공감하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기도 했고, 개구쟁이 같은 모습으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책 읽는 법, 글 쓰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또한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대장정을 함께 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참여 기관 목록

연번	지역	도서관명	참여기관명
1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두리하나 국제학교
2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망우청소년단기쉼터
3	부산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부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4	대구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대구광역시단기청소년쉼터
5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늘사랑청소년센터
7	인천	학나래도서관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별마루
8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신명보육원
9	대전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대전시단기청소년쉼터
10	경기	-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11			고양청소년쉼터 동지
12	강원	춘천교육문화관	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13	충남	공주시 시립도서관	공주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14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사단법인 드림학교
15	전북	전주시립송천도서관	임마누엘 청소년 쉼터
16	전남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	경남	진양도서관	클라라의집
1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경기지역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 연계 운영

A large, dashed blue rounded rectangle that serves as a container for a list. Inside the rectangle, there are 18 horizontal light blue lines, each preceded by a small blue dot, creating a list template.

A large, dashed blue rounded rectangle that serves as a container for a list. Inside the rectangle, there are 18 horizontal light blue lines, each preceded by a small blue dot, creating a list forma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most of the width of the rectangle.

A large, light blue rounded rectangle with a dashed blue border. Inside the rectangle, there are 20 horizontal, light blue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from top to bottom.

 2017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운영사례집

인 쇄 일 2017년 12월 31일
발 행 일 2017년 12월 31일
발 행 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 행 인 여위숙
주 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www.nlcy.go.kr
전 화 (02)3413-4800
팩 스 (02)3413-4759
인 쇄 PWK
I S B N 978-89-6032-356-8 93020 비매품/무료

※ 이 자료집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간하였습니다.